



## The MICE Plus 가 만난 사람들 ace of MICE

- 쑤집1** 2019년 (사)한국MICE협회 사업소개  
**쑤집2** Asia Pacific MICE Business Festival 2019 리뷰  
**쑤집3** Don't ever stop learning!  
 · PCMA 아태 지사장 Antonio Codinach 인터뷰
- 특집1** 서울관광재단 출범 후 1년, '가치 있는 변화의 시작'  
 · 서울관광재단 이재성 대표이사 인터뷰
- 특집2** 유니크 수원, 부티크 데스티네이션의 꿈  
 · 수원컨벤션뷰로 유세준 단장 인터뷰
- 특집3** MICE 전문 인력 양성과 일자리 창출 리더도시, 인천  
**특집4** 세계 100대 여행 경험, JW 메리어트 푸꾸옥에서!
- 소식1** 대한민국 MICE 문화외교관, 글로벌 MICE 홍보대사  
**소식2** 2019 서울 MICE 미래인재의 날, 뜨거웠던 현장의 열기  
**소식3** MICE 보증은 관광공제회로!
- 트렌드1** 해외 MICE 동향  
**트렌드2** MICE 유니크 메뉴  
 · JUST KPOP / STAGE28
- 트렌드3** MICE와 지식재산권



인천에서  
글로벌하게 놀자!

# 2019 국제기구 -MICE 커리어페어

2019. 9. 27 (금) 10:00-18:00

송도컨벤시아 제2전시장

참가대상 국제기구 및 MICE 분야에 관심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가능

참가기관 해외·국내 소재 국제기구 및 MICE 기관

사전등록 커리어페어 전용 홈페이지 ([www.incareerfair.com](http://www.incareerfair.com))에서 사전매칭

프로그램 국제기구·NGO 진출설명회, MICE 채용설명회,  
글로벌 MICE아카데미, 채용 상담 및 홍보 부스 운영(1:1 심층면접),  
PT 경연 및 공모전 등

문의 인천관광공사 MICE부로 (032-899-7435)



# 풍성한 한가위 되세요.



- 1999 회사설립 - 한국국제물류추진업협회 가입
- 2002 IELA(국제전시물류협회)가입, 외국인 투자회사
- 2004 ISO 9001 인증
- 2005 재정경제부 장관 "표창장" 수상
- 2006 본사 사업장 확장 이전  
경기 일산 포장센터 및 창고 설립
- 2009 베트남 호치민/하노이 사무소 설립
- 2010 본사 사옥 확장 이전(서울 성수동 지식센터)  
무역전시산업 발전부분 지식경제부 장관상 수상
- 2011 IELA(국제전시물류협회) 2011 한국총회 유치  
IELA KOREA "BEST ON-SITE SERVICE" 상 수상
- 2012 한국 MICE 협회 가입  
ELL(Event Logistics Live) 총회 참가  
국무총리 "표창장" 수상
- 2013 ISO 9001 갱신  
DAVOS Forum 공식운송사 지정  
경기도지사 "경기국제보트쇼 유공 표창장" 수상
- 2014 세계수학자대회 공식운송사 지정  
Air Cargo Forum 공식운송사 지정  
ITU PP 공식운송사 지정
- 2015 세계양식학회 공식운송사 지정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공식 운송통관업체 갱신
- 2016 세계한상대회 공식운송사 지정  
ASME TURBO EXPO 공식운송사 지정  
KESPA (한국전시서비스업협회) 부회장사
- 2017 KORMARINE 2017 공식운송사 지정  
세계원전사업자협회총회 공식운송사 지정
- 2018 WORLD ECONOMIC FORUM 공식운송사 지정  
BIXPO 2018 공식운송사 지정
- 2019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공식운송사 지정  
IBA Annual Conference 공식운송사 지정

## EXHIBITION FREIGHT FORWARDER

### Official Freight Forwarder at Korea Exhibition Site

COEX, KINTEX, BEXCO, CECO, EXCO, ICC JEJU, KDJ, SETEC, SONGDO CONVENIA, SCC



**KEMI-LEE CO., LTD. EXPO SERVICE & LOGISTICS**

(주)캐미리 서울시 성동구 성수이로 22길 37 아크밸리 201호 (성수동 2가 227-43)

TEL 02-565-3400 FAX 02-553-8458 EMAIL info@kemi-lee.co.kr

WEBSITE www.kemi-lee.co.kr

# The MICE<sup>+</sup>plus

Meeting Incentive Convention Exhibition

MICE는 세상의 물음표를 느낌표로 만들어 주는 든든한 파트너입니다.  
세계인이 만나는 드넓은 세상에서 여러분이 꿈꾸는 내일을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 더 마이스 플러스 통권 제44호

발행 (사)한국MICE협회 발행일 2019년 7월 24일 발행인 김응수

주소 서울시 중구 퇴계로 18 대우재단빌딩 15층 Tel. 02-3476-8327 Fax. 02-3476-8449

# C o n t e n t s

T h e M I C E P l u s V o l . 4 4

- 04 **쑑인1**      2019년 (사)한국MICE협회 사업소개
- 06 **쑑인2**      Asia Pacific MICE Business Festival 2019 리뷰
- 10 **쑑인3**      Don't ever stop learning!  
· PCMA 아태 지사장 Antonio Codinach 인터뷰
- 12 **특집1**      서울관광재단 출범 후 1년, '가치 있는 변화의 시작'  
· 서울관광재단 이재성 대표이사 인터뷰
- 14 **특집2**      유니크 수원, 부티크 데스티네이션의 꿈  
· 수원컨벤션뷰로 유세준 단장 인터뷰
- 18 **특집3**      MICE 전문 인력 양성과 일자리 창출 리더도시, 인천
- 20 **특집4**      세계 100대 여행 경험, JW 메리어트 푸꾸옥에서!
- 24 **소식1**      대한민국 MICE 문화외교관, 글로벌 MICE 홍보대사
- 28 **소식2**      2019 서울 MICE 미래인재의 날, 뜨거웠던 현장의 열기
- 32 **소식3**      MICE 보증은 관광공제회로!
- 34 **트렌드1**      해외 MICE 동향
- 40 **트렌드2**      MICE 유니크 메뉴  
· JUST KPOP / STAGE28
- 42 **트렌드3**      MICE와 지식재산권





## 2019년 (사)한국MICE협회 사업소개

2019년의 반이 지났다. 누군가에게는 '아직도?' 일수도, '벌써?' 일수도 있겠다.  
한해의 중간 시점에서, (사)한국MICE협회는 MICE 업계 성장과 산업 발전을 위해 어떤 사업들을 추진했는지,  
그리고 앞으로 추진할 사업들에 대해 소개해본다.

2019년 협회가 주목한 키워드는 '변화'와 '확장'이다.  
다양한 사업목표와 추진방향에서 그 키워드를 읽을 수 있다.

2017년 정부 출범 이후 가장 주목받은 키워드는 단연 '일자리'였다. MICE산업은 '사람'이 가장 중요하다고 이야기한다. MICE 기업이 늘 찾고 있는 '인재' 그리고 '일자리'를 찾는 청년들! 아이러니하게 업계에서는 사람이 부족하다고 하고, 청년들은 일자리가 없다고 한다. 채용 미스매칭을 해소하기 위해 우리 협회도 지속적으로 MICE 산업 인력양성에 주력해왔다.

협회는 '한국MICE아카데미' 사업을 통해, 약 700여 명의 수료생을 배출하며 명실상부한 MICE 인재 사관학교로 자리매김했다. 뿐만 아니라 재직자 대상 직·간접적 교육 지원으로 업계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노력해왔다.

### 2019년, 협회 교육사업에도 '변화'의 바람이 불었다!

대학생 대상으로 진행했던 '한국MICE아카데미'는 멘토링과 팀프로젝트를 강화하여 '한국 영마이스 리더 프로젝트'로 탈바꿈 되었다. 온·오프라인 교육을 함께 진행하는 등 운영 방식을 전면적으로 개편하였으며, 기존 참여인원의 두 배 인원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인지도 높은 사업명을 포기하고 신선한 '변화'를 택했기에 사업을 준비하면서 기대보다는 걱정이 앞섰다.

그러나 MICE 교육 전문기관으로서 협회의 인지도와 다양한 홍보채널, 실무 전문가 강사진 등 협회가 가진 강점을 활용하여, 현재 100여 명의 예비 MICE 리더들이 참여하게 되었다. 협회는 본 프로젝트를 통해 MICE에 대해 제대로 이해하고, 실무능력을 키운 귀중한 인재들이 업계로 유입되길 기대하고 있다.

지난 6월 시작된 ‘MICE 재직자 전문가 양성과정’은 개선된 커리큘럼과 운영 방식으로 업계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이전 재직자 교육은 업계 경력을 기준으로 대상(신입사원/중간관리자)을 구분하여 3~4일 일정으로 추진되었다. 짧은 일정임에도 불구하고 업계 특성 상 직원 교육을 3일 이상 보낼 수 없는 현실적인 문제와 다양한 교육 수요를 반영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었다.

새롭게 바뀐 재직자 교육은, 경력 구분 없이 격 주 1회(회당 2차시) 운영되며, 주제와 난이도에 따라 자유롭게 강의 선택이 가능하다. 교육이 필요한 재직자 누구나 개인 일정과 강의 주제에 따라 선택 수강이 가능해진 것이다. 이것이 변화한 ‘MICE 재직자 전문가 양성과정’이 업계에서 핫한 반응을 얻고 있는 이유다. 지금 실시되고 있는 상반기 교육 일정은 9월까지이며, 이후 하반기 과정을 개설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 활용도를 기반으로 한 플랫폼 확장

MICE는 플랫폼 산업이다. 산업과 산업을 연결하고, 사람과 사람을 연결한다. 협회도 융복합 MICE 플랫폼으로서 역할을 다하고 있다. 플랫폼 안에서 업계가 얻어갈 수 있는 혜택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있는 중이다.

2017년 온라인 교육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여, MICE 교육 플랫폼을 완성했다. 약 1,400여 명이 온라인 가입을 하여 MICE교육을 수강하고 있다(기준: 2019.7.11.). 현재 MICE기본과정과 NCS기반 심화과정 교육 콘텐츠가 탑재되었으며, 오프라인 교육 신청, 취업 정보 확인이 가능하여 통합적인 교육 관리가 가능해졌다. 이제 MICE 교육을 시공간의 제약 없이 수강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올해에는 MICE 심화과정(회의기획), MICE 공정거래를 주제로 한 특별과정, 현장형 교육 콘텐츠가 추가된다. ‘온라인 MICE 연수원’은 업계 입문자와 재직자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교육 플랫폼으로 더욱 확장될 예정이다.

또한 협회는 MICE 산업에서 무분별하게 사용되고 있는 지식재산권으로 보호받는 저작물(폰트/음원 등)에 대해 선

도적으로 인식제고를 해야 할 필요성을 느껴 ‘MICE 지식재산콘텐츠 제작’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현재까지 MICE 행사 맞춤형 음원 35곡과 MICE고딕, MICE명조 폰트가 개발되었다. 올해는 추가 1종의 폰트가 더 개발될 예정이다. 협회가 개발한 음원과 폰트는 지식재산권에 저촉되지 않고 누구나 사용이 가능하다. 하반기에는 MICE 지식재산권 콘텐츠의 확산을 위해 ‘MICE 지식재산 콘텐츠 플랫폼’을 완성할 예정이다. 플랫폼을 활용한 MICE 지식재산권 대국민 인식제고를 기대해본다.

### 꾸준함을 이길 그 어떤 재주도 없다

위 사업 외에도 협회는 관광공제회 운영, MICE 행사 보험, MICE 통합 컨시어지 데스크, 「The MICE Plus」 발간, MICE 기업 신용평가 서비스 등 다양한 업계 지원 사업을 꾸준히 추진하고 있다. 꾸준함을 이길 그 어떤 재주도 없다고 한다. 업계를 위한 사업들을 계속 고민하고 꾸준히 실천하다 보면 업계에도 긍정적인 변화들이 생겨날 것이라고 믿는다.

2019년의 반이 지났다. 누군가에게는 아직도? 일수도, 벌써? 일수도 있겠다.

협회는 '아직도?' 도 '벌써?' 도 아닌 '시작'이다. 업계 발전을 위해 해야 할 사업은 아직도 많다.

협회는 365일 뜨거운 여름이다.



# Asia Pacific M I C E Business Festival 2019

리뷰 · 2019 아태 마이스 비즈니스 페스티벌

2019년 4월 4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Asia Pacific MICE Business Festival 2019의 일곱 번째 이야기가 시작되었다.

1박 2일의 짧지만 의미 있는 시간을 정리해본다.

아태 마이스 비즈니스 페스티벌(이하 마페)은 2018년, '한국마이스연례총회 및 마켓플레이스'에서 이름을 바꾼 아태 지역을 아우르는 MICE 비즈니스 행사로 새롭게 탈바꿈했다.

2019년 마페의 주제는 '새로운 시대, 새로운 길, MICE 路!'였다. 이제는 현실로 다가온 4차 산업혁명, 여전히 평화의 길을 개척하고 있는 남북관계, 급변하는 국제정세, 예기치 않은 재난 등 변화하는 외부환경에서 MICE 산업이 가야하는 길을 함께 고민하고자 했다.





## Mission

마페는 ‘비즈니스’, ‘교육’, ‘네트워킹’, 세 가지 미션을 가지고 있다. 비즈니스를 목적으로 전시홍보 부스, 국내 MICE 주최자들과 셀러들의 1:1 비즈니스 상담회가 준비되었으며, 기조강연, 특별강연, PCMA Education Session 등 업계 재직자들을 위한 교육이 진행되었다.

또한 업계 네트워킹을 위한 오찬, 환영만찬, 수원 투어까지 참가자들이 함께 할 수 있는 시간들이 마련되었다. 한정된 시간에 다양한 프로그램이 많았던 이유는 바로 세 가지 미션을 달성하기 위한 선택이었다.

## Education

2019 마페에서, 가장 많은 호평을 들었던 부분은 강연이었다. 기조강연은 ‘4차 산업혁명시대와 MICE 비즈니스 모델’을 주제로 성균관대학교 최재봉 교수님이 강의하였다. ‘포노 사피엔스’ 개념을 설명하며 스마트폰을 보는 신인류를 대상으로 MICE 산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성에 대해 설명해주시어, 지금 시기에 매우 중요한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었다.



특별강연은 ‘핵심을 통찰하는 기획의 힘, 상상력의 힘’을 주제로 탁현민 대통령 행사기획 자문위원께서 열정적인 강연을 해주셨다. MICE 업계 종사자라면 누구나 고심하고 있는 행사기획, 무언가 새롭고, 의미 있는 행사를 만들기 위한 기획자의 고충들에 대해 공감하고 계시는 듯 했다. 기획자가 갖춰야 하는 마인드와 기본자세는 무엇인지, 어떤 행사가 의미 있는 행사로서 참가자들을 감동하게 할 수 있는지, 실제 사례를 통해 이해하게 되는 매우 생동감 있는 강연이었다.

뿐만 아니라 PCMA APAC과 공동 구성한 세션들도 인기를 끌었다. ‘PCMA Knowledge Exchange’는 PCMA APAC Regional Business Director로 활동하고 있는 Antonio Codinach가 직접 강사로서 Meeting & Events 산업의 미래에 대해 강연하고, 참가자들과 함께 그룹토의를 통해 아젠다를 도출하는 등 참여와 교육이 함께 이루어졌다. PCMA Education Session은 아태지역 MICE 산업의 현황과 최신 트렌드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었다.

\* PCMA APAC : Professional Convention Management Association(PCMA)은 전 세계 37개국 7,000여 명의 Business Events 업계 전문가가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최대 규모의 네트워킹 협회로, 2018년 싱가포르에 Asia Pacific 사무국을 설립함





## 중인2

일반세션은 MICE 지식재산권, 검색 키워드 분석으로 살펴본 2019년 행사 트렌드, 블록체인 기술로 인한 업계의 변화, 성공적인 브랜드 전략 등 참가자들의 관심을 끄는 강연들이 이어졌다.

### Business

2019 마페에는 55개 전시 부스, 28개 협·단체·학회·전시 주최사 바이어, 그리고 44개 협회 회원사와 MICE 얼라이언스 미팅 테이블 등 비즈니스 참가가 두드러졌다. 바이어와 셀러는 각각의 비즈니스 목적에 맞게 다양한 방식으로 행사 참가가 가능했다.

전시장 내 이벤트 존에서는 MICE 유관 기관들의 홍보시간이 주어졌다. 양일간 전시부스와 1:1상담회, 미팅테이블 운영이 이루어졌으며 공식적으로 집계된 상담건수만 400여 건이 넘었다.



### Networking

협회는 올해로 설립 16주년을 맞이하였다. 2003년 설립 이래로 회원사의 가입과 활동이 늘어나면서 지금의 대한민국 MICE 산업을 대표하는 협회로서 성장할 수 있었다. 이에 2019 마페에서는 10년 이상 협회 회원사로 가입하여 활동하고 있는 39개 회원사를 협회 우수회원으로 선정하여 감사패를 수여하였다.

또한 MICE 산업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확대를 위해 개최된 'MICE웹툰 공모전-MICE 직장인 오피스 라이프' 시상도 이루어졌다. 2년간 MICE를 주제로 영상 공모전을 개최하였으나, 최근 웹툰에 대한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새로운 형식의 MICE 대국민 인식 공모전으로 기획되었고, 참가자들의 뜨거운 관심을 모았다.



### Next, APMBF2020?

늘 업계의 의견을 바탕으로 새로운 도전을 하고 있는 마페는 2020년 2월 27일(목)부터 28일(금)까지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대전, 대구, 경주, 여수, 정선, 인천 송도, 수원을 거쳐 드디어 서울에 상륙한 마페!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국제회의도시 서울!

MICE 산업을 이끄는 업계 대부분이 서울시에 소재하고 있으며 전 세계의 관심 또한 대한민국 서울을 향하고 있다. 협회는 2020마페를 조금 더 차별화하고, 조금 더 새롭게 디자인할 각오를 하고 있다. MICE협회 회원사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지지속에 2020마페는 대한민국 MICE산업을 대표하는 행사로 자리매김해 나갈 것이다.





## Don't ever stop learning!

인터뷰 · Antonio Codinach PCMA 아시아태평양 지사장



Antonio Codinach

/ PCMA 아시아태평양 지사장

\* PCMA: Professional Convention Management Association

PCMA는 전 세계 Business Event 산업에서 가장 큰 규모의 단체로서 북미, 유럽, 중동, 아시아의 37개 국가들과 협력하여 교육 및 네트워킹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PCMA 아시아태평양 지사가 작년 싱가포르에 설립된 이후 이들은 올해 초부터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도시를 순회하며 지역맞춤형 교육·네트워킹 프로그램인 'PCMA Knowledge Exchange(PCMA KE)'를 직접 운영하고 있다.

지난 4월 수원컨벤션센터에서 개최한 'APMBF 2019'에서 한국 최초로 진행된 PCMA KE의 연사였던 PCMA 아시아태평양 지사장 Antonio Codinach에게 그들의 목표와 그의 스토리를 물었다.

### Q1. PCMA Knowledge Exchange 프로그램의 목표와 컨셉은?

PCMA Knowledge Exchange(PCMA KE)는 철저한 지역 맞춤형 교육 및 교류 프로그램이다. 지역 주민, Business Event 종사자 등 모든 관계자 간 사업 연결과 교육 기회 제공이 주 목적이다. 올해 PCMA 아시아태평양지역의 KE 프로그램은 아래와 같이 3가지 주제를 다루고 있다.

- 1) PCMA와 Marriott 그룹이 함께 연구한 5가지 트렌드를 바탕으로 한 미래 Meeting & Events 시장 전망
- 2) 약 1년 전, PCMA와 멜버른전시컨벤션뷰로가 함께 연구한 아시아 시장에 초점을 둔 기업 인센티브투어 전망
- 3) Business Event 산업 시장에서의 할랄문화

## **Q2. 타 교육 프로그램과 차별화된 ‘PCMA KE 시리즈’의 매력은?**

PCMA는 전세계에서 가장 잘 알려져 있으며, 가장 인정받는 Business Event 산업 전문가들로 구성된 조직이다. 교육, 네트워킹 프로그램을 통해 업계 종사자들이 산업을 리드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조직의 이념이다. 우리의 교육이 양질의 프로그램이어야만 참가자들의 전문성이 높아지며 개인적으로든, 직업적으로든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 지역, 산업과 관련한 주제 뿐 아니라 타 산업의 인사이트와 트렌드를 PCMA KE 프로그램으로 공유함으로써 세계 경제와 사회 발전을 이끌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 **Q3. 지난 APMBF2019에서 진행된 한국 최초 KE 프로그램에 대한 소감은?**

참가자의 수준과 그들이 종사하는 산업에 대한 높은 이해도가 매우 인상 깊었다. Business Event 산업은 서울 외곽의 떠오르는 목적지인 수원, 사회, 경제적 발전에 큰 역할을 할 것이다. 수원컨벤션센터를 중심으로 새로 구축되고 있는 사회 기반 시설이 이를 잘 보여주고 있다. 세션을 진행하며 다양한 창의적 아이디어와 5개의 연구 트렌드가 제시되었다. ‘이렇게 다양한 의견들과 적용사례가 나올 수 있다니!’ 퍼실리테이터로서 특히 인상 깊었다. 이런 점들이 배움의 길에 있는 우리를 더욱 발전시킬 수 있는 포인트라고 생각한다.



## **Q4. 아태 MICE 국가들에서만 경험했던 특별한 스토리나 공유하고 싶은 점들이 있다면?**

가장 인상 깊은 점은 아태지역 참가자 개개인과 그들 국가가 전 세계 경제에 미치는 엄청난 영향력이다. 현재 전 세계 인구는 북미에 10억 명, 유럽에 10억 명, 아프리카에 10억 명 그리고 아태지역에 40억 명이 분포되어 있다. 그러나 2025년에는 전 세계 인구의 80%가 대륙과 국가에 집중된 것이 아닌 600여개의 ‘도시’에 살게 될 것이다. 즉, 제 2, 3의 도시(destination)들이 그들의 사회에서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할 기회가 다가온다는 것이다. 아태지역은 현재 사회, 경제, 정치적 이슈에 항상 개어있는 지역이다. 의지만 있다면 누구보다 먼저 성공을 쟁취할 수 있는 기회가 넘쳐나는 곳이라고 생각한다.

## **Q5. 앞으로 한국과 협업하고 싶은 프로젝트가 있는지?**

PCMA는 지역 사회의 경제동력을 불러일으키고 변화와 발전을 위한 기회가 있다면 언제든지 한국과 협업하고 싶은 의지가 있다. PCMA의 핵심 가치는 ‘교육’이므로, 우리의 지식, 공동연구, 경험, 네트워킹을 공유할 수만 있다면 어디로든 갈 것이다. PCMA는 지역의 목소리와 요구에 귀 기울여, 그들에게 최적화된, 최고의 해결책을 제공할 것이다.

## **Q6. 아태지역 MICE 종사자들에게 그들만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조언을 부탁한다.**

첫째로, 배우는 것을 멈추지 말고 평생 학습 마인드를 추구하라. 시대는 감당할 수 없는 속도로 계속 변화하고 있다. 더 이상 ‘학습→일→승진→일→퇴직’이라는 구조는 없을 것이다. 우리는 끊임없이 학습해서 앞으로 다가올 다양한 도전에 언제든지 맞설 준비를 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자신만의 네트워킹을 구축하라. 아태지역은 ‘당신이 무엇을 아는지’ 보다 ‘당신이 누구를 아느냐’가 더 중요시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스스로의 네트워킹을 구축하는 것을 멈추지 말아야 한다.

## 서울관광재단 출범 후 1년, ‘가치 있는 변화의 시작’

인터뷰 · 이재성 서울관광재단 대표이사

서울관광의 가치를 높이기 위한 치열한 고민 끝에 2018년 5월 1일 서울관광재단이 출범하였다.  
‘가치관광, 같이서울’이라는 새로운 시각으로 공존과 상생의 가치를 더한 서울관광의 새 시대가 시작된 것이다.  
그로부터 1년, 서울관광재단은 무엇을 이루었고 앞으로 무엇을 이룰 것인가.  
‘가치 있는 변화의 시작’을 알리기 위해 서울관광재단 이재성 대표이사를 만났다.



### Q1. 취임 후 1년, 이룬 성과는 무엇이라 생각하는가?

첫째로 소통을 기반으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했다는 것이다. 일명 ‘우.문.현.답(우리의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다) 릴레이 간담회로 관광업계와 시민들을 만나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다. 또한 기존사업과 신규사업을 검토하여 최종적으로 86개의 신규 사업을 도출하였고, 그 중 총 266억 규모의 20개 사업이 재단 고유사업이 되었다.

두 번째로는 우리의 고객을 외래관광객 뿐 아니라 서울을 방문하는 내국인, 서울 거주 외국인, 서울시민까지로 정의

하였다는 것이다. 기존에 외국인 전용으로 판매되던 ‘디스커버 서울패스’는 올 하반기 시민용으로도 출시 예정이며, 서울시민의 생활 속 관광편의를 증진하고 ‘생활관광’ 시대를 여는 데 적극적으로 앞장서고자 한다.

뿐만 아니라 물리적 관광환경 개선을 위한 ‘무장애관광 포털’, ‘서울다누리 센터’를 오픈하고 ‘온라인 서울관광 방송국’을 개국하는 등 유니버설 관광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1년은 결코 짧지 않은 시간이었다.



## Q2. 앞으로 2년, 집중하고 싶은 분야는? 단계적인 계획은?

우선 서울시민의 삶과 균형, 관광시민을 위한 사업을 확대 할 것이다. 그 일환으로 ‘서울관광아카데미’를 단계별로 진행하여 시민 일자리 창출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서울 거주 비정규직과 특수고용 노동자에게 휴가비를 지원하는 ‘서울형 여행바우처’ 사업으로 서울시민의 ‘관광시민’ 화를 이루고자 한다.

더불어 지속가능한 관광산업 발전을 위해 업계와의 협업 체계를 강화할 것이다. 2019년 312개사 ‘서울 MICE 얼라이언스’를 구축하였고, 서울의 MICE 중소기업의 경영문제 해결과 강소기업화를 위하여 전문상담 서비스를 지원하는 ‘서울 MICE 종합지원센터’를 개소하였다. 또한 민관 협력 기반의 서울 MICE 지원 프로그램 ‘PLUS SEOUL’ 혜택과 관광 스타트업 지원을 확대하고, 인바운드 여행사와 협력하여 우수여행사 선정, 고품질 여행상품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스마트한 해외시장 개척과 홍보를 위해 글로벌 마케팅과 R&D 기능을 강화하고, 기술 발전에 따른 대화형 안내 챗봇 서비스를 개시하여 연중무휴의 관광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서울시 자치구 및 지방과 연계하여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다. 지역 기반 관광 콘텐츠를 개발하고, 지방 연계 관광상품을 개발하여 맞춤형 컨설팅과 교육과 홍보를 지원함으로써 ‘서울마을관광’을 육성하고자 한다.

## Q3. 서울은 UIA 기준 국제회의 개최 3위 도시이다. 글로벌 마이스 개최도시 “서울”을 홍보하기 위한 방안은?

2019년 10대 MICE 트렌드 키워드를 보면 개인맞춤형, 참가자 경험, 지속가능성, AR, 밀레니얼세대 등 기억에 남는 단어들이 있다. MICE 산업에서 ‘경험’이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서울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인 ‘PLUS SEOUL’ 혜택을 더욱 강화하여 MICE 참가자의 만족도와 주최자의 재방문율을 높이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그리고 글로벌 마이스 개최도시로서 서울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양질의 DB를 발굴하고, 주최기관에게 맞춤형 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다. 아직 서울은 인프라가 부족하기 때문에 컨벤션 시설이 확보되는 2025년까지, 급성장 하고 있는 IT, AR/VR 관련 산업분야 대형 국제회의 유치에 주력할 계획이다.

## Q4. 서울시 관광마케팅 전담기구에서 관광플랫폼으로, 앞으로의 목표는?

서울관광재단은 서울관광마케팅이 수행했던 역할을 계승 하되, 공공성, 전문성, 책임성을 강화하여 본격적인 관광플랫폼으로서 기반을 확보하였다. 이제 10년의 노하우를 가진 관광, MICE 사업과 함께 공공기관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수행하기 위한 사업, ‘관광시민’을 지향하는 사업, 지역과의 상생을 위한 사업을 확장 추진하여, 가치 중심의 질적 성장을 이루고자 한다.

관광으로 인한 시민 삶의 변화, 산업의 성장과 경제 활성화, 도시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서울관광의 지속가능발전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서울관광재단으로 시작한 1년, 그들의 말처럼 ‘가치 있는 변화’가 시작되었다. 서울은 이제 ‘당신의 서울’에서 나아가 ‘우리의 서울’이 되어 ‘같이의 가치’를 실현하고자 한다. ‘플랫폼’은 콘텐츠와 이용자가 중요하다. 서울관광재단은 MICE, 관광을 둘러싼 모든 이해관계자와의 소통을 기반으로, 이들이 필요로 하는 콘텐츠를 개발하여 참여를 유도하고 함께 공존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어갈 것이다. 대한민국 MICE 대표 도시 서울의 대표기관인 서울관광재단의 더 큰 발전을 기대한다.

## 유니크 수원, 부티크 데스티네이션의 꿈

*Unique Suwon, Boutique Destination*

인터뷰 · 유세준 수원컨벤션뷰로 단장

“수원컨벤션센터는 유니크한 부티크 데스티네이션입니다.  
기본적으로 컨벤션과 인센티브 투어에 중점을 두고 독특하지만  
컨셉이 분명한 컨벤션과 전시를 선별해 유치하려 합니다.  
수원의 정체성에 어울리는 품격 있고 독특한 컨벤션을 통해  
저희 수원을 유니크하고 부티크한 도시로 만들 것입니다.”



수원은 과거와 미래가 함께 공존하고 있다. 200년 전 정조가 건축한 계획도시 화성과 대한민국 대표기업 삼성이 함께 공존하고 있다. 게다가 입지조건이 상당히 좋다. 공항이 가까이 있고 강남에서 지하철로 35분 거리인 수도권에 있기 때문에 공간 운용에 큰 어려움도 없다. 그래서 수원컨벤션센터는 오히려 수원이 지닌 품격이나 이미지에 맞는 회의를 선별 유치함으로써 수원컨벤션센터를 통해 ‘유니크 수원, 부티크 데스티네이션(Unique Suwon, Boutique Destination)’을 만들어 나가는 꿈을 꾸고 있다.

수원컨벤션센터가 가진 독특한 점은 시민에게 열린 공간인 지하 이벤트 홀에서도 잘 나타난다. 이벤트 홀은 지하 1층이지만 경사진 지형이어서 실제로는 1층에 위치하고 있다. 약 25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공간인데 수원컨벤션센터가 지닌 굉장히 유니크한 공간이다. 시민들을 위한 유명인사들의 강연도 있고, 시민들이 모여 자기들만의 토론도 하고 반응이 굉장히 좋다.



“수원컨벤션센터를 수원 시민들의 커뮤니티 센터로 만들고 싶습니다. 기본적으로 컨벤션센터가 잘 되려면 지역 주민들부터 많이 찾아야 합니다. 우리 주민이 찾지 않는 곳을 누가 찾겠습니까? 경제 쪽에서 보면 내수가 잘돼야 수출이 잘되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인센티브 투어에서도 수원컨벤션센터는 강점을 가지고 있다. 중국을 포함한 동남아 다국적 기업들은 한국을 방문하고 싶어 한다. 수원은 화성과 삼성이라는 확실한 산업기반과 세계문화유산을 갖추고 있다. 그리고 수원 인근에는 특히 외국인에게 이색 경험을 제공해 주는 에버랜드와 민속촌도 위치해 있다.

이런 측면에서 수원컨벤션센터는 ‘지역 특화 컨벤션’이 가능하다. 지역 특화 컨벤션은 그 지역 특성이나 문화 콘텐츠가 산업기반과 맞으면서 지속적으로 개최될 수 있는 회의를 말한다. 수원의 특화된 콘텐츠들을 잘 활용한 특화 컨벤션을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도시가 매력적이면 컨벤션 유치가 쉬워집니다. 최근 MICE에 융복합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비즈니스만 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경험, 낯선 체험을 원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수원은 뛰어난 문화콘텐츠와 현대의 산업기반이 살아있는 매력적인 도시입니다.”

컨벤션뷰로의 주 기능은 도시마케팅이다. 수원 화성처럼 완벽하게 복원된 아름다운 성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매주 서울 남산에서 진행 중인 ‘거북이 마라톤’ 행사가 있다. 서울보다 공기 좋고 과거의 정취가 물씬 풍기는 수원, 그 중에도 수원 화성에서 화성걷기 행사 같은 것을 한다면 흥미로운 이벤트가 될 수 있다.

그리고 ‘나혜석 거리’가 있다.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화가인 나혜석은 100년의 시대를 앞서 살아간 분이다. 이런 분도 스토리텔링과 도시마케팅의 좋은 소재가 될 수 있다.

이외에도 색깔 물총을 쏘면서 걷는 ‘컬러 런’ 같은 대회를 통해 수원이 가진 아름다움을 마음껏 드러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수원은 야경과 야식의 명소이다. 수원 화성의 야경과 컨벤션센터 주변 수변 경치는 환상적이다. 전통시장, 통닭거리, 플라잉 수원, 연극제, 재즈페스티벌 등 다양한 콘텐츠가 있다. 서울에서 가깝기에 ‘관광지’로 생각하지 않는 수원의 인식을 바꾸는 것이 필요하다.

최근 MICE의 트렌드는 식상한 대도시에서 ‘참신한 중소도시’로 옮겨가고 있다. 컨벤션센터가 있고 공항이 가까우며, 문화콘텐츠와 산업기반이 있는 곳을 찾는다. 수원은 이 모든 조건을 다 갖추었다. 광고호수가 내려다보이는 워터뷰, 멀리 산이 보이는 마운틴뷰, 현대적 고층 빌딩들이 즐비한 시티뷰가 공존하는 자연친화 도시이다. OLD와 NEW의 완벽한 조화를 가진 문화도시이다. 수도권 800만 인구, 서울을 포함하는 2500만 인구가 즐길 수 있는 복합도시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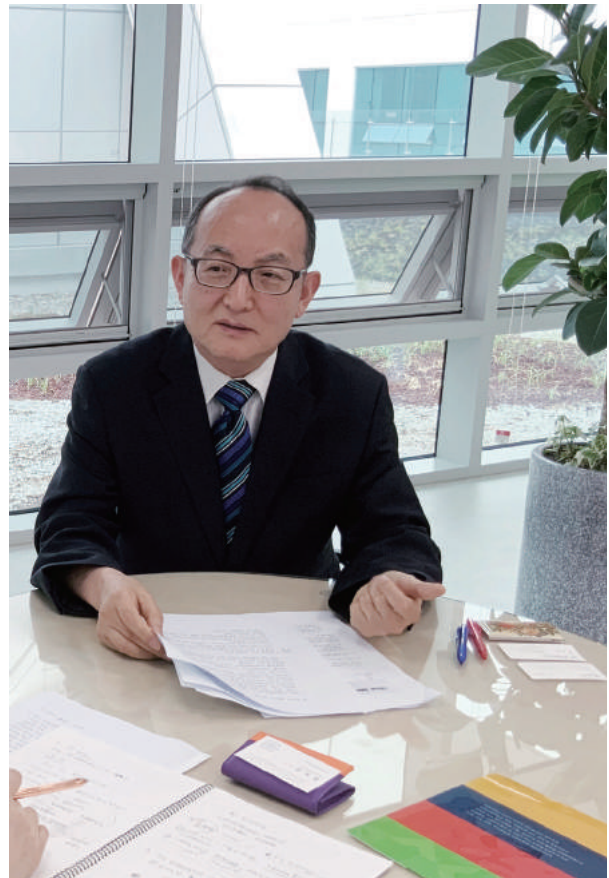
“MICE 산업은 기본적으로 노동집약 산업입니다. 젊은 청년들이 마음껏 일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 주고 싶습니다. 우리 컨벤션센터에 MICE 관련 벤처나, 스타트업 창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을 위한 공유 오피스 등 창업관련 지원을 하려 합니다. 청년들이 가진 창의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싶습니다.”

수원컨벤션센터는 이제 막 시작하는 단계이다. 기초적인 DB구축, 시민 마이스터즈 구성, 얼라이언스를 구축하고 있는 기반조성단계이다. 앞으로 인쇄, 통역, 장비 렌탈, IT관련사, PCO 등 MICE 관련 업체와 시설들을 일괄 입주시켜서 원스톱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준비 중이다. 그 중 특히 관심을 끄는 것이 일정 공간을 청년 창업 지원에 활용하는 것이다. MICE 벤처나 스타트업 창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런 분위기가 활성화 되면 장기적으로 국제적 전시유치를 위해 전시장 확장이 필요도 필요할 것이다.

MICE 업계는 모두 한 배에 탄 공동운명체이다. 컨벤션센터, 컨벤션뷰로, 관광공사, 학계와 협회, PCO 뿐만 아니라 호텔, 여행사, 운송회사 등 모두가 협조하고 서로 도와야 한다. 컨벤션과 전시가 융복합 하는 것이 최근 트렌드 이므로 모두가 상호 노력하여 시너지를 창출 하도록 해야 한다.

유세준 수원컨벤션뷰로 단장은 MICE 업계에서 일하기를 희망하는 청년들에게 외국어가 전부가 아님을 강조한다. 독서를 통한 창의력과 상상력과 든든한 체력 위에 마지막으로 태도를 강조한다. 여행이나 아르바이트, 인턴 생활 등 다양한 경험을 통해 인간에 대한 배려, 이해, 존중을 가져야 한다.

“책만 보고 체력만 갖추면 사람이 단순해 질 수 있습니다. 튼튼한 공부 잘하는 사람인데 할 줄 아는 게 없을 수 있습니다. 많은 경험을 통해 사회에 대한 자신만의 시각을 갖춰야 합니다. 인간에 대한 이해, 배려, 존중, 이런 것들을 더 하면 나머지 기술적인 문제는 충분히 극복가능 합니다. 능력보다는 태도, 지식보다는 지혜를 갖춘, 그런 사람이 우리 MICE 산업에 꼭 필요합니다.”



# YOUR NAME COULD BE ON THIS TICKET TO BANGKOK

## BOARDING PASS 24 – 26 September 2019

In Partnership with:

**IT&CM Asia**  
Incentive Travel & Conventions, Meetings

**CTW**  
Asia-Pacific  
Corporate Travel World

**MICE** Korea MICE Association

NAME

JOB TITLE

ORGANISATION

EMAIL

FROM  
TO  
GATE  
SEAT  
DATE  
FLIGHT

Fill in your details, take a picture and pick your event!  
Send us the image OR scan your selected event QR code below to indicate your interest.

### Newly Introduced Buyer Activities

including an interactive ice  
breaker, brand showcase  
presentations, exhibition  
walk-about, meet-the-  
corporates and more

### Specialised Tracks For Different Buyer Segments

featuring freshly curated  
highlights to meet MICE,  
Association and Corporate  
Travel objectives

### Up to 100% Pre-Scheduled Appointments

with the largest collection  
of Asia-Pacific MICE and  
Corporate Travel Suppliers

### Hosted Buyer Privileges

including flights and  
accommodation for  
qualified MICE, Association  
and Corporate Travel buyers



Exhibitors | MICE  
Buyers | MICE | Association Professionals  
& Executives  
Media | MICE & Associations

[www.itcma.com](http://www.itcma.com)  
[buyers.itcma@ttgasia.com](mailto:buyers.itcma@ttgasia.com)



Exhibitors & Sponsors  
Corporate Travel Managers  
Conference Delegates  
Media | Corporate Travel

[www.corporatetravelworld.com/apac](http://www.corporatetravelworld.com/apac)  
[ctm.ctwapac@ttgasia.com](mailto:ctm.ctwapac@ttgasia.com)

Organised By

**TTG** | **Events**

Host Country and Strategic Partner

**REDEFINIE**  
YOUR BUSINESS EVENTS

Supported By



**TICA**  
TOURISM INDUSTRY COUNCIL OF ASIA



**AOT**  
ASSOCIATION OF OPERATORS  
& TRAVEL AGENTS



Official Airline

**THAI**  
Smooth as silk

Official Venue

**CENTARA**  
GRAND  
CONVENTION CENTRE  
AT CENTARA WORLD



## MICE 전문 인력 양성과 일자리 창출 리더도시, 인천

‘안정적인 MICE 생태계 구축’  
‘선순환 구조를 통한 지속적인 발전’  
‘민간과 공공 협력을 통한 지역경제 기여’

국내 첫 국제회의 복합지구를 보유한 인천시가 MICE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해 ‘세계 10대 마이스(MICE) 도시’로 성장을 꿈꾼다.

그 중 사회적가치 창출의 일환으로 MICE 전문 인력 양성과 우수 인력 유입을 위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100명 이상의 일자리 창출에도 일조할 계획이다.

‘인천 MICE산업 지원센터’, ‘인천 MICE업체 청년 인턴십’, ‘국제기구-MICE 커리어 페어 개최’, ‘인천 Young MICE

리더 양성’ 총 네 가지 사업으로 크게 나눠 볼 수 있다.

먼저, 인천 MICE 생태계 활성화와 청년 창업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인천 MICE산업 지원센터」를 설립하여 MICE 분야 청년 스타트업 창업을 지원하고, 강소기업 및 전문 인력을 육성한다. 인천 송도 국제회의복합지구 내에 핵심 인프라를 구축하고, 마이스 스타트업 육성 공모전 개최, 창업 지원, MICE산업 정보 제공, 네트워크 연결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39세 미만 청년 25개 팀 76명을 선발하여 사업 운영 공간을 제공하고 특정기간 임대료를 감면하며 사업 고도화를 위해 자금도 지원한다. 또한, 실전 전문교육, 법률·재무·회계 컨설팅, 멘토링과 같은 창업 초기 지원을 하며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진행하는 ‘스타트업 벤처 폴리스’ 사업과 연계해 관광 앱·소프트웨어·하드웨어 등 정보통신기술(ICT)을 접목한 창업을 지원할 방침이다. 올해는 인프라 구축 위주로 사업이 진행되며 금년 말에 문을 열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MICE 창업 사업화 지원에 중점을 둘 예정이다.

두 번째로, 인천지역 MICE 일자리 발굴 및 지역 MICE업체에 청년인력 공급을 위해 민간 취업 연계형 「인천 MICE 업체 청년 인턴십」 21명에 대한 일자리를 지원한다. 인천 지역에 거주하는 39세 이하의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청년 인턴십 운영을 희망하는 MICE업체에게 인건비의 90%를 지원하고, 초기에 MICE 산업에 대한 이해도를 제고시키기 위해 인턴 대상 집합 실무교육도 실시한다. 이 사업은 우수한 지역인력의 타지자체 유출 방지 및 지역 유입 확대를 위해 행정안전부와 3년간 시행하는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2019년 ~ 2021년)’으로 내년에도 추진할 예정이다.

세 번째로, 국제기구 및 MICE 분야 진출 희망자에게 취업 정보교류 플랫폼 및 채용의 장을 제공하고, 개최 연례화로 ‘일자리 매칭 NO.1 인천’ 브랜드화를 위해 9월 27일 금요일 10시부터 18시까지 인천송도컨벤시아 제1전시장에서 「2019 국제기구-MICE 커리어페어」가 개최될 예정이다.

올해 5주년을 맞이하여 참가자들에게 좀 더 실질적인 혜택을 주고자 공모전이나 콘테스트 수상자에게는 인턴의 기회와 상장이 수여될 예정이며, 취업 매칭률을 제고하고자



홈페이지에서 사전 매칭을 통해 1:1 심층면접을 거쳐 현장에서 채용이 많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국제기구-MICE 커리어페어는 구직자, 대학생, 경력단절 여성, 유학생, 이주민 등 전 국민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며, 국내외에 소재하는 80개 이상의 국제기구 및 MICE 기관이 참가하여 분야별 채용설명회 및 채용 면접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그 외에도 글로벌 MICE아카데미, PT 경연 및 공모전, NGO 진출설명회, 부대행사, 이벤트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인천 MICE산업 우수인재 양성과 확보를 위한 「인천 Young MICE 리더」 운영이다. 올해 MICE 분야에 관심있는 제 4기 영마이스리더 35명을 선발하여 MICE 산업에 대한 이해도와 전문성을 제고시키고자 ‘MICE 역량강화아카데미’를 운영하여 다양한 MICE 온·오프라인 실무이론교육, 업계 종사자와의 멘토링을 진행하고, 현장 체험 기회 제공 및 참가자 참여형 프로젝트를 진행한다.

내년에는 MICE 관련 자격증 취득 실무 교육과정도 개설하고, MICE 지원센터와 연계하여 창업지원 기회도 제공하며 좀 더 내실화하여 실질적인 도움을 줄 계획이다.

이처럼 인천은 MICE산업의 장기적인 발전을 위해 체계적으로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청년층 일자리 창출까지 연계하는 선순환 구조를 형성하여 안정적인 MICE 생태계를 구축하고자 한다. 또한, 건실하고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민간과 공공이 균형을 맞춰 함께 노력하며 지역경제에 크게 기여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단순히 관광만을  
위한 휴양지가 아닌,  
최상의 베뉴와  
다양한 콘텐츠가  
결합된  
MICE 개최지,

## JW 메리어트 푸꾸옥 에메랄드 베이

세계 100대 여행 경험, JW 메리어트 푸꾸옥에서!

자유여행 시대, 저렴한 항공권과 숙박까지. 짧은 비행 시간으로 여행 가능한 국가가 많은 요즘, 시간만 허락한다면 우리는 언제든 떠날 준비가 되어있다.

사람들은 잘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한 호기심과 도전정신이 있다. 아직 알려지지 않은 여행지도 마찬가지다. 최근 새롭게 알려지고 있는 휴양지가 있으니, 바로 베트남 남서부에

위치한 휴양지 '푸꾸옥 섬'이다. 베트남에서 방문율이 높은 다낭, 나트랑과는 달리 아직 개발 중인, 무궁무진한 가능성과 가치를 지닌 곳이다.

지난 2017년, 푸꾸옥 섬의 가치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었다. 최초의 국제적인 5성급 리조트, 바로 'JW 메리어트 푸꾸옥 에메랄드 베이'가 오픈한 것이다.



JW 메리어트 푸꾸옥은 234개의 객실, 스위트, 및 빌라를 갖추고 있으며, 템пус 푸지트(Tempus Fugit), 레드 룸(Red Rum), 핑크 펄(Pink Pearl), 디파트먼트 오브 케미스트리 바(the Department of Chemistry bar) 등 5개의 레스토랑과 현대적인 바를 갖추어 고객에게 최상의 다이닝 경험을 선사한다.

715m<sup>2</sup> 규모의 그랜드 볼룸 및 여유로운 소규모 회의실은 모든 고객의 필요에 맞게 우아하게 디자인 되어 있으며, 이 외에도 문화 행사부터 쇼핑, 스파, 리조트 전용 해변에서 즐기는 수상 액티비티에 이르기까지 리조트를 방문한 모든 고객에게 다양한 경험을 선사한다.

이로서 푸꾸옥 섬은 단순히 관광만을 위한 휴양지가 아닌, 최상의 배뉴를 기반으로 다양한 콘텐츠가 겸비된 MICE 개최지가 된 것이다.



JW 메리어트 브랜드는 진정으로 풍성하고 럭셔리한 경험을 고객에게 제공하기 위한 직관적인 서비스와 헌신으로 유명하다. 이 브랜드 철학을 확장하기 위해 JW 메리어트 푸꾸옥 에메랄드 베이는 멋진 이벤트를 만들고 모든 참석자에게 매력적인 경험을 선사한다. 손길이 닿지 않은 해변, 목가적인 분위기의 일몰, 아름다운 풍경을 자랑하는 푸꾸옥은 베트남의 숨겨진 보석이며, 호치민 시, 방콕, 광저우, 인천과 같은 지역 게이트웨이 도시와의 직항 노선을 제공하여 떠오르는 목적지로 주목 받고 있다. 리조트는 공항에서 차로 15분 거리인 편리한 위치에 자리 잡고 있으며 섬의 다른 어떤 럭셔리 호텔보다 공항과의 거리가 가깝다.

빌 벤슬리(Bill Bensley)가 개발한 가상의 대학 콘셉트를 바탕으로 디자인된 리조트는 실내·외 총 5,080 제곱미터 규모의 미팅 공간에서 이벤트에 창의력을 더하는 완벽한 목적지이다. 세계 최고 수준의 미팅과 이벤트 경력을 갖춘 전담 팀이 상주하며, 고객을 위해 그들만의 유일한 맞춤형 이벤트로 진행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라마르크 오디토리움(Lamarck Auditorium) 내에 위치한 다목적 미팅 및 이벤트 공간은 초고속 인터넷은 물론 최신 시청각 시설을 갖추고 있다. 빈티지 지도들로 꾸며져 있고 중세 시대의 친밀한 학교 강당의 모습으로 디자인된 그랜드 볼룸은 750명까지 수용할 수 있으며, 높은 천장의 넓은 688 제곱미터의 공간은 연회, 컨퍼런스, 갈라 디너와 같이 대형 규모의 이벤트를 개최하기에도 부족함이 없다.



## 특집4

이벤트 전 리셉션과 휴식 시간에는 지루할 틈이 없다. 고대 극장의 배우 휴게실처럼 꾸며진 엘리엇의 백스테이지(Elliott's Backstage)는 아름다운 무대 의상 및 소품으로 꾸며져 있다. 룸 오브 배드 디자인(Room of Bad Design)에서는 6륜 자동차의 오리지널 빈티지 스케치를 포함해 실패한 디자인 및 아이디어에 대한 기발한 자료를 찾을 수 있다.

잭슨 폴락(Jackson Pollock)의 드립 페인팅에서 영감을 받은 아티스트 룸(Artist Room)은 100 제곱미터 규모로 대형 페인트 브러시 모양의 대담한 조명이 설치되어 있으며 최대 90명까지 수용할 수 있다.



야외에서 영감을 주는 이벤트를 만들기 위해 디자인된 라마르크 러닝 트랙(Lamarck Running Track)은 맞춤형 축하 행사, 스포츠 액티비티, 팀 빌딩 등을 위한 무한한 가능성을 제공한다. 완벽하게 정돈된 잔디, 아름다운 건축물 배경과 함께 리조트의 가상의 공간인 “캠퍼스”의 중심에 위치해 있어 푸꾸옥의 아름다운 전경과 함께 대규모의 이벤트를 개최가 가능하다.



또한 JW 메리어트 푸꾸옥 에메랄드 베이는 다양한 다이닝 및 케이터링 옵션을 제공한다. 석양의 빛에 휩싸인 디파트먼트 오브 케미스트리 바(Department of Chemistry Bar)의 테라스는 100여 명의 고객이 칵테일 파티를 즐기기에 이상적인 장소이다. 독특하고 몰입할 수 있는 다이닝 경험을 위한 새로운 프렌치 파인 다이닝 레스토랑인 핑크 펄(Pink Pearl)은 호화로운 가구 및 눈길을 끄는 패턴의 멋진 배경을 제공한다. 이 럭셔리한 해변가의 핑크빛 맨션은 고급스러운 디너 파티, 성대한 축하 행사, 화려한 엔터테인먼트로 완성된 특별한 행사를 위해 완벽한 장소이다.





10명을 위한 식사부터 180명 규모의 케이터링 서비스까지 JW 메리어트 푸꾸옥 에메랄드 베이는 올데이 다이닝 레스토랑 템푸스 푸지트(Tempus Fugit), 해변가 해산물 그릴 레스토랑 레드 럼(Red Rum), 그리고 리조트의 메인 스트리트인 워드 라마르크, 수영장 옆, 이벤트 정원 등 리조트 내에서 다양한 다이닝 옵션을 제공한다.

사토루 타케우치(Satoru Takeuchi) 셰프가 이끄는 연회 팀은 창의력이 돋보이는 훌륭한 요리로 고객들에게 푸꾸옥에서 최상의 정통 케이터링 메뉴를 즐길 수 있도록 한다. 고객은 세련된 연회, 런치 미팅 또는 비즈니스 디너 등 모든 행사를 위해 기존 메뉴 또는 맞춤 케이터링을 선택할 수 있다.

전담 케이터링 및 컨퍼런스 매니저는 고객의 요구사항을 충족시키고 창의적인 테마부터 아이스 브레이킹 세션까지 모든 것을 지원한다.

또한 이벤트에 참석하는 고객들은 세계 최고급 스파 시설인 샹트렐 - 스파 바이를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도 있다. 스파는 전용 럭셔리 욕조, 사우나 및 한증실이 있는 1개의 VIP 트리트먼트 룸, 7개의 트리트먼트 룸, 2개의 반사요법 룸, 2개의 익스프레스 트리트먼트 룸, 사우나 및 한증실, 뷰티 살롱 등의 시설을 갖추고 있다. 차분함, 만족, 활기, 회복 등 4개의 핵심 요소를 기본으로 통합적이고 현지에서 영감을 얻은 독점적인 테라피 프로그램이 고객들의 휴식을 도와준다.

특히, 지난 7월 10일 세계적으로 권위 있는 여행 잡지인 트래블 앤 레저(Travel + Leisure)가 발표한 2019년 월드 베스트 어워드에서 JW 메리어트 푸꾸옥 에메랄드 베이는 동남아시아 최고의 리조트 부문 1위, 아시아 최고의 리조트 부문 2위 및 세계 최고의 호텔 100에서 6위로 선정되기도 했다.



아직 알려지지 않은 보물 같은 장소, 새로운 MICE 개최지, JW 메리어트 푸꾸옥 에메랄드 베이를 소개했다. 신선하면서도 럭셔리함, 목가적이면서도 활동적인 다양한 시설과 액티비티를 갖췄다.

MICE人士的 호기심을 자극하기에 충분하다.

이 호기심이 행사 이후 만족으로 이어질 차례이다.



[미팅 세일즈 담당자]

· 전화: +84 297377 9999

· 이메일: mhms.pqcjw.sales@marriott.com

· 홈페이지: www.jwmarriottphuquoc.com

[홍보 문의]

크레드 CRED 이수정 이사

· 전화: 02-6959-6647 / 010-4853-1121

· 이메일: crystal.lee@cred.co.kr



## 대한민국 MICE 문화외교관, 글로벌 MICE 홍보대사



인터뷰 · 크리스티안 부르고스, 후지모토 사오리, 테리스 브라운, 오오기 히토시 에프엠지(주) 엔터테인먼트



지난 5월 8일 한국MICE협회 사무국에서 ‘(사)한국MICE협회 글로벌 홍보대사’ 위촉식이 진행되었다.

이 날 위촉된 ‘(사)한국MICE협회 글로벌 홍보대사’는 대한민국에 거주하며

글로벌 교류와 협력을 위해 애쓰고 있는 외국인 엔터테이너다.

‘비정상회담’, ‘어서와 한국은 처음이지?’ 등 TV프로그램 출연으로 이미 친숙한 인물도 있을 것이다.

크리스티안 부르고스(멕시코), 후지모토 사오리(일본), 테리스 브라운(미국), 오오기 히토시(일본)이  
홍보대사로서 위촉장을 수여받았다.

출신국가와 한국의 문화교류 매개체로서 문화외교관 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외국인 엔터테이너!

이제 그들이 경쟁력을 갖춘 MICE 국가, 대한민국을 위한 활동을 시작한다.

MICE 홍보대사로서 이들의 다짐과 향후 계획을 들어보자!

**Q1. 안녕하세요. 글로벌 홍보대사로 위촉된 에프엠지 (주) 소속 외국인 엔터테인먼트 여러분, 각자의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크리스티안 부르고스(크)** 안녕하세요. 한국에 온 지 4년 된 멕시코 온 방송인 크리스티안 부르고스 입니다.

**오오기 히토시(오)** 안녕하세요! 일본에서 온 오오기입니다. 현재 일본어 강사와 방송인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후지모토 사오리(사)** 안녕하세요. 일본에서 온 후지모토 사오리입니다. 지난 'Asia Pacific MICE Business Festival 2019' 에서 공연팀<한글>로 참여해서 공연을 했었는데요, 홍보대사로 위촉 돼서 정말 영광입니다. 저는 한글팀에서 "한국수어(수화언어)"로 음악을 보이게 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테리스 브라운(테)**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에서 온 만능 엔터테이너 테리스 브라운이라고 합니다.

**Q2. 대한민국 관광산업을 위해 현재까지 다양한 역할들을 수행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일들에 참여하셨는지 간단한 활동내역을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크** 한국 전통의 아름다움부터 한복의 편리함까지. 다양한 행사에서 참여하며 외국인뿐만 아니라 한국 사람까지 대한민국을 더욱 가깝게 느낄 수 있도록 노력했습니다. 연주와 사진 촬영, 야외행사와 포럼 등 다양한 행사에 참여했죠.

**오** 2017년엔 한국 둘레길 홍보대사가 되어 창원에 다녀왔는데요. 제가 지방 출신인 만큼 지방의 매력을 많이 느끼고 왔습니다. 그리고 공식적인 건 아니지만 일본에서 온 손님 혹은 여행자 분들을 안내하는 역할도 했습니다. 앞으로 한국MICE협회를 통해 보다 다양한 역할을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사** 2018평창동계올림픽 대회와 동계패럴림픽 대회 홍보대사 일본대표로서 활동을 시작하며, 제33회 한국국제관광전(KOTFA) 글로벌 홍보대사 일본대표로서도 홍보

활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글팀 멤버로서 법무부 서울출입국외국인 청 홍보대사로 위촉되어 각종 법무부 주최 행사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기타 TV, 라디오, 팟캐스트 방송, 공연, 강연 등에 출연을 하고 있습니다.

**테** 최근에 저는 여러 지방을 다니면서 한국의 많은 농업 유산을 소개하는 프로그램을 했습니다. 또 제가 음악을 좋아해서 한글팀과 같이 많은 행사에 참여해 다양한 국적을 가진 사람들에게 한국 음악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공연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Q3. 글로벌 홍보대사로 위촉된 네 분외에도 에프엠지(주) 소속 엔터테이너분들은 다양한 국가에서 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스스로 ‘문화외교관’이라는 타이틀로 자부심을 갖고 활동한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국가에서 오셨고, 양국의 문화교류를 위해 어떤 일들을 하고 계신가요?**

**크** 말씀 드렸듯이 저는 멕시코 출신인데요, 한국에 와서 느낀 점은 한국과 멕시코가 서로에 대한 정보가 너무 부족해서 착각과 오해가 많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멕시코를 한국에 알리기 위해 비정상회담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매주 멕시코에 대한 새로운 면을 소개하고 오해를 풀었습니다. 이후 멕시코 대사관과 함께 다양한 일을 진행하였고, 그 끝없는 노력을 인정받아 지난 멕시코 독립 기념일 행사에서 멕시코 대사님으로부터 직접 감사패를 받았습니다.

또한 얼마 전까지 한복홍보대사로 활동하면서 멕시코뿐 아니라 전 세계 사람들에게 한복의 아름다움과 편리함을 알렸습니다. 그리고 한국 문화를 알리고 싶은 마음이 너무 커서 ‘한글팀’이란 공연팀을 만들었습니다. 한글팀은 ‘한국 문화를 알리는 글로벌 아티스트’라는 줄임 말이며, 한국을 대표할만한 곡들을 전통악기와 대중악기를 섞어서 함께 연주하는 팀입니다. 노래 부를 때 1절은 보컬의 자국어(외국어)로 부르고 2절은 한국어로 부르며 전 세계 사람들이 한국 음악을 듣고 공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글팀 리더이고, 현재 한국MICE협회 글로벌 홍보대사로 같이 위촉된 미국 가수 테리스 브라운과 수어 아티스트 일본 사오리 후지모토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오** 저는 일본 나가사키에서 왔습니다. 아시타시피 짬뽕으로 유명한 도시죠. 제가 한국에 온 이유도 민간의 힘으로 한국과 일본이 교류 할 수 있게 하고 싶어서였는데, 지금 이렇게 문화외교관으로 활동할 수 있어서 영광입니다. 언어를 통해 양쪽 문화를 알게 되는 부분이 크다고 느껴져서, 현재 저는 일본어 강사를 하며 문화교류자로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언어를 가르치면서 다양한 문화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고 싶습니다.

**사** 일본 항구도시 요코하마에서 왔습니다.  
(블루라이트 요코하마~♪다들 잘 아시지요?)

‘한국과 일본은 가깝고 먼 나라’ 라는 말이 있습니다. 역사, 정치적인 면에서는 갈등이 많은 것은 현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에서는 제3차 한류 붐이 이어지고 있어요. 이런 시대 흐름과 함께 젊은 사람들이 선입견 없이 한국에 관심 갖게 되고 교류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한국에서 활동 하면서 방송, 라디오 등 각 언론에 출연하는 것으로 일본사람들에 대한 인식을 긍정적으로 변화시켜 한국과 일본을 가깝게 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반대로 일본사람들에게는 실제 한국에서 생활하고 있는 일본사람이 알려주는 정보가 일본 내에서 알고 있는 정보 보다 더 정확하고 새롭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좋은 반응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 2018평창동계올림픽 대회와 동계패럴림픽대회에서 실시간으로 전 세계에 메시지를 전달했고, 저의 평창패럴림픽 성화 봉송 장면, 그리고 홍보대사 활동의 모습이 일본의 큰 매체 (NHK, 지지통신사, Yahoo!, 아사히신문 등)에 대대적으로 노출이 되었습니다. 특히 일본 스피드스케이팅 올림픽 금메달 고다이라 나옴 선수를 비롯해 패럴림픽 금메달 선수들과 인터뷰를 하게 되어 정말 인상 깊고 감동적이었습니다. 일본의 2020도쿄 패럴림픽 홍보대사인 카토리 신고 씨(아이돌 그룹 SMAP출신)와 장근석씨를 만나 대화를 나눴을 때는 문화외교관이라는 말의 의미를 느끼며 뿌듯했습니다.

**테** 저는 미국 뉴욕 주에서 왔습니다. 미국은 워낙 다양한 인종이 사는 국가이고 뉴욕은 더 많은 사람들이 함께 살고 있는데요, 저는 이러한 미국의 다양성을 알고 싶습니다. 특히 이때까지 영화에서 봤던 고정된 이미지와는 다른 면을 여러 토론 프로나 예능으로 통해서 보여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미국 학교에서는 한국에 대해서 잘 배울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BTS나 유명 아이돌 가수들 덕분에 한국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추세를 타서 저도 한글팀과 함께 한국을 대표할 만한 곡들을 편곡해서 미국 사람들의 관심을 높이하고자 합니다. 한국의 많은 관광지를 소개하고 미국 사람들이 한국을 더 잘 이해하고 관광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Q4.** 국내에서 개최되는 MICE 행사는 주제와 시기, 참가국과 참가자수, 행사의 형태 등이 매우 다양합니다. 홍보대사 분들이 적재적소에서 MICE 행사를 홍보하고 더 많은 참가자를 유치하며 행사의 질을 높일 수 있다면, 대한민국 MICE 산업 발전에 큰 힘이 될 거 같은데요, 어떠한 역량들을 가지고 있으신지 말씀해주실 수 있나요?

**크** 문화가 입혀진 색다른 공연부터 행사MC와 토론 사회자까지. 문화 교류의 필요가 있다면 사람들에게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가 하나다’라는 걸 느끼게 만들겠습니다.

**오** 저는 토론 패널, 강연을 중심으로 일해 왔습니다. 그리고 일본 관련 행사가 많을 거라 생각하기 때문에 한일MC로서 활동하고 싶습니다. 일본어 강사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MC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MICE 행사에서도 MC로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 제가 실제 한국에서 경험했던 이야기를 주제에 맞게 소개하는 것은 물론, 일본 내 관광회사를 대상으로 MICE 행사를 알리기 위해 한국어와 모국어로 홍보 영상 콘텐츠를 촬영하거나, 행사MC(일본어/한국어)로 활동 가능합니다. 그리고 한글팀의 공연을 통해 MICE 행사를 새롭게 연출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저는 한국 수어를 하기 때문에 농인 분들도 참여할 수 있는 행사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테** 저는 2018 평창동계올림픽과 패럴림픽 때 삼성 쇼케이스 센터에서 한영 MC를 맡았고 앞으로도 다른 국제적인 행사에서 한영MC로 활동하고 싶습니다. 또 한글팀과 함께 항상 공연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Q5.** MICE 홍보대사로서 여러분의 활동이 기대가 됩니다. 지속적으로 적극적인 활동 부탁드립니다. MICE 행사에서 자주 뵈었으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향후 활동계획 혹은 MICE 글로벌 홍보대사로 각오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크** 글로벌 시대에 서로에 대한 다양한 정보들을 많이 공유하고 문화 교류가 활발해지면 서로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져. 결과적으로 다른 산업 분야, 그 외 다양한 부분에서 협력이 되고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 일본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역할은 정말 많다고 생각합니다. 계속해서 언어를 통해 교류를 할 수 있게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글로벌 MICE 홍보대사로 보다 많은 사람이 웃으면서 행복하게 지낼 수 있도록 도와주고 싶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사** 모국어와 한국어를 구사하기 때문에 살아있는 정보를 실시간으로 전달 할 수 있는 것이 저의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한국과 일본의 문화, 유행을 잘 따라가며 효율적인 홍보를 실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사회통합이란 이름으로 외국인과 한국인, 농인과 청인, 모든 사람들이 문화생활, 관광을 즐길 수 있는 권리가 있듯이 일본도 한국도 ‘다시 가고 싶은 나라’로 만들어 가고 싶습니다.

**테** 저는 MICE와 함께 활동하면서 좋은 그리고 다양한 사람을 많이 만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엔터테인먼트 쪽 일을 하면서 항상 한국이라는 나라에 얼마나 많은 보석이 숨어 있는지를 알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국MICE협회가 저에게 좋은 기회를 주신 만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2019 서울 MICE 미래인재의 날

2019.7.5(금) 11:00-17:00

“모든 것이 너무나 빠르게 변하는 시대. 산업의 내일을  
예측하고 준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지금,  
MICE의 미래를 이끌 인재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내일의 주역, 대한민국 MICE의 미래가 든든한 이유다.”



장소  
플로팅 아일랜드

주최 | 주관  
ETC 서울관광재단  
SEOUL TOURISM FOUNDATION

후원  
MICE 한국MICE협회





행사장의 분위기가 예사롭지 않다. 이른 아침부터 분주한 손길이 이어진다. 약간의 긴장과 설렘이 공존하는 가운데 참가자들이 밝은 얼굴로 들어선다. MICE의 미래를 이끌, MICE 미래 인재들. 바로 오늘의 주인공들이다.

지난 7월 5일, 서울관광재단이 주최·주관하고 (사)한국 MICE협회가 후원한 “서울MICE 미래 인재의 날”이 세빛섬 플로팅 아일랜드에서 개최됐다. 서울뿐만 아니라 경기, 인천, 제주 등 전국에서 참가한 MICE 서포터즈 200여 명의 뜨거운 참여열기로 MICE에 대한 관심을 실감케 했다. 다양한 지역에서 왔음에도 금세 하나가 되어 어우러진다. 사람과 사람이 만나 일구는 산업, MICE 산업의 미래 인재들답다.

행사장을 찾은 내빈들 역시 응원의 박수를 아끼지 않았다. 서울관광재단 이재성 대표이사는 환영사를 통해 한국의 미래를 이끌어갈 주역으로써 젊음의 패기로 끊임없는 도전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한국MICE협회 서원준 부회장 역시 축사에서 경험을 통해 MICE의 매력을 찾아가길 당부했다.

뿐만 아니라 기조강연에서는 대학생이 만나고 싶은 멘토 1위로 꼽히는 글로벌 IT기업 김태원 상무의 재치 있는 강연이 이어졌다. 김 상무 역시 빠르게 변하는 시대에 앞서나가 변화해야함을 강조하며, 유명한 것보다 새로운 것에 집중하라는 조언을 아끼지 않았다. 또한 글로벌 IT기업의 시각으로 MICE 산업을 빅데이터로 분석해 고객니즈를 파악하는 법을 제안해 현장의 큰 호응을 얻었다.





소식2

이번 행사의 주제였던 서울·타시도 상생방안은 MICE 공모전을 통해 다채롭게 제안됐다. 열띤 공모전 발표 덕분에 다른 지역의 MICE산업에 대해 이해하고 배워갈 수 있는 시간으로 마무리됐다.

뿐만 아니라 어디서도 만나지 못한 새로운 아이디어들을 통해서 MICE 산업의 미래를 기대하게 했다. 대상의 영광은 경주화백컨벤션뷰로에게, 최우수상과 우수상은 각각 서울관광재단과 경기관광공사에게 주어졌다.

또한 퀴즈를 풀며 MICE 산업을 즐겁게 해석한 'MICE 퀴즈쇼', 업계 취업을 위해 준비하는 미래인재들에게 선배의 조언을 들을 수 있는 멘토링 콘서트인 '멘토의 참견'도 진행돼 업계로 한 발 다가서는 기회가 마련됐다.

MICE 산업은 사람이 만드는 산업이다. 기회도, 미래도. 모두 사람 사이에서 만들어진다. 때문에 이번 '서울 MICE 미래인재의 날'은 MICE 산업의 미래를 미리 만나는 시간이었다.

MICE 산업에 대한 애정을 가득 안고 열정적으로 참가한 서포터즈들.

멀지 않은 미래, 대한민국을 이끌 MICE 전문 인력이 되어 다시 만날 그 날을 기대하며, 짧지만 뜨거웠던 현장의 열기를 잠시 담아둔다.





## "2019 서울 MICE 인재의 날, 그 후 이야기"

- 행사 참가 후기

“ '멘토의 참견'이라는 멘토링 콘서트는 현직 실무 종사자 네 분을 모시고 마이스 전문가를 꿈꾸는 대학생들의 고민과 궁금증을 해소하는 시간이었다. 실제 전시 유치과정 및 경쟁 스토리와 가장 보람찼던 유치경험, 대학생에게 가장 추천하는 활동, 그리고 MICE 업계에서 살아남으신 노하우 이렇게 세 가지 질문에 답해주셨다. 멘토링 콘서트를 통해 아르바이트나 박람회 및 전시회 운영 요원의 경험을 쌓는 것이 중요하겠다는 생각을 했고 또 자극을 받을 수 있는 시간이었다!

“ 아무래도 이런 자리에 가게 되면, 서로 아는 사람들끼리 앉았을텐데 센스있게 번호를 뽑아서 자리를 지정하는 방법은 정말 좋았던 것 같아요. 덕분에 경주, 제주, 강원, 부산, 경희컨벤션학회의 MICE인재들과 한 테이블에 앉아 다양한 얘기를 나누면서 시간을 보낼 수 있었어요.

1부를 정리하고, 2부를 준비할 동안 홀에 준비된 다과를 먹으면서 '뽐기'를 하고 전국의 MICE인재들과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빠지지 않았던 포토존까지 작은 홀이었지만 아기자기 없는 것 빼고 다 있어서 즐거웠던 아이스 브레이킹 시간이었어요!

“ 저는 행사에 참가하기 전에 2019년 서울 MICE 미래의 인재의 날에서 공모전이 있어서 딱딱하고 어려운 이야기만 있을 것이라는 고정관념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기초강연, 멘토링, 네트워킹 등 모두 저에게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2019년 트렌드가 뉴트로(NEW-RETRO 새로움-복고)인데 뉴트로를 행사에 접목시켜서 잘 구성하였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구글 코리아 김태원 상무님의 강연을 통해 저는 사소한 것들도 여행 상품이 될 수 있으며, 작은 아이디어가 큰 상품으로 만들 수 있고 스토리가 중요한 시대에 살고 있구나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 \*관광공제회란?

한국관광협회중앙회가 전국 17개 시·도별 관광협회, 업종별 관광협회와 함께 운영하는 관광업계전문 보증기관입니다.

# MICE 보증은 관광공제회로!

32년간의 여행사 보증사업에서 쌓은 노하우와 신뢰를 바탕으로  
이제는 모든 MICE·관광사업자의 든든한 공제회가 되겠습니다.

## [관광공제회 보증상품]

구분	상품 종류	상품 내용
계약보증	입찰보증	주계약의 입찰에 필요한 보증상품
	선금금보증	주계약에서 선금금 반환과 관련한 보증서를 제출하는 경우 필요한 보증상품
	계약보증	주계약에서 계약의 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제출하는 경우 필요한 보증상품
	하자보증	계약의 하자담보 책임기간 동안의 하자보증금을 대신하는 보증상품
영업보증	영업보증 (인·허가 보증)	여행업 등록과 관련한 필수 보증상품 ※ 관광진흥법 제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에 의거 의무가입 상품
지급보증	지급보증	주계약에서 대금지급과 관련한 보증서를 제출하는 경우 필요한 보증상품



## 관광공제회는 한국MICE협회로!

- 신규 공제 상품 도입으로 다양한 보증상품 가입 가능
- 보증보험 가입 **비용 절감**
- 관광공제회 전담직원 배치로 **신속한 가입** 가능

※ 가입방법 및 절차는 뒷면을 확인해 주세요!



한국관광협회중앙회 관광공제회



국제회의전문기구

Korea MICE Association

한국MICE협회

## \* 가입절차

# MICE 보증은 관광공제회로!



### ① 기업회원(대표자) 가입

- ② 기업회원(담당자) 가입
- ③ 대표자 로그인 후 담당자 승인
- ④ 담당자 로그인

### ① 공제보증가입 온라인 접수

- ② 서류제출 및 전자서명
- ③ 공제료 납부
- ④ 서류심사

※ 자세한 회원가입 절차는

관광공제회 홈페이지 고객센터>가입안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접수 후 한국MICE협회에 연락 주시면  
신속한 응대와 접수 처리가 가능합니다.

※ 기업회원(대표자) 가입단계에서

업종선택 시 여행업, 국제회의기획업, 시설업을 제외한 업종은 '국제회의서비스업' 선택

※ 기존 관광공제회 홈페이지 가입 회원사는,

관광공제회 홈페이지 > 로그인 > 마이페이지 > 회원사정보관리에서

'국제회의기획업, 국제회의시설업, 국제회의서비스업' 업종 추가 후 이용 부탁드립니다.

## \* 관광공제회 홈페이지 : <http://ktasb.or.kr>

\* 가입문의: (사)한국MICE협회 기획조정팀

T. 02-6366-0715

E. dami811@micekorea.or.kr

# 해외 MICE 동향

\* PATA (Pacific Asia Travel Association)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여행 및 관광산업의 발전을 위해 1951년에 설립된 비영리 단체로,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본사를 두고 있으며, 전 세계 약 800개의 회원을 보유하고 있음

## 1. Asia Pacific Visitor Forecasts 2019-2023 / PATA

PATA에서는 향후 5년간 외국인 방문객 예측 자료를 정량적인 지표 기반으로 제공하여 관광분야 종사자들의 의사 결정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자료를 제작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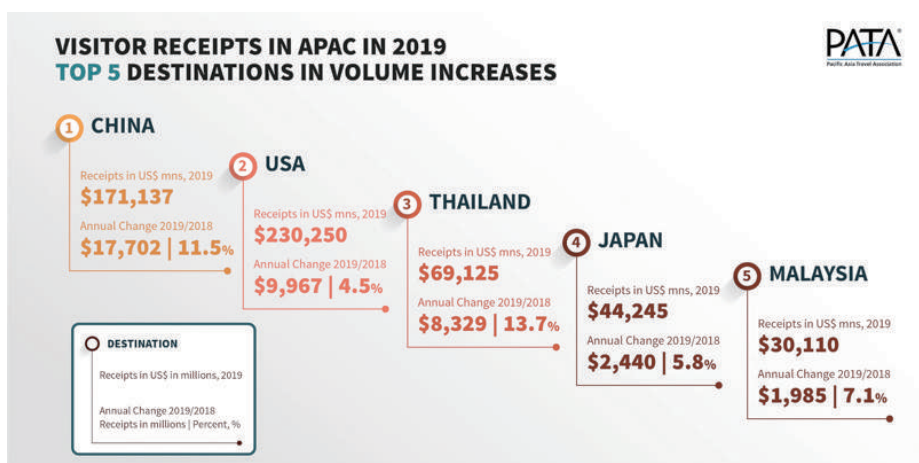
본 자료를 통해 아태지역으로의 외국인 방문객을 가장 많이 발생시키는 국가, 아태지역 중 가장 많은 외국인이 방문하는 국가, 외국인 방문객 증가로 인해 발생하는 수입의 증가 수치 등을 파악할 수 있다.

[그림1] 2019년 아시아 태평양 지역으로의 외국인 방문객은 2018년보다 4,000만여 명 증가된 7억 2,840만여 명으로 예상되며, 2023년까지 아시아 태평양 지역을 방문하는 외국인 수는 매년 5%이상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림1] 아태지역 방문지(destination)의 연간 평균 성장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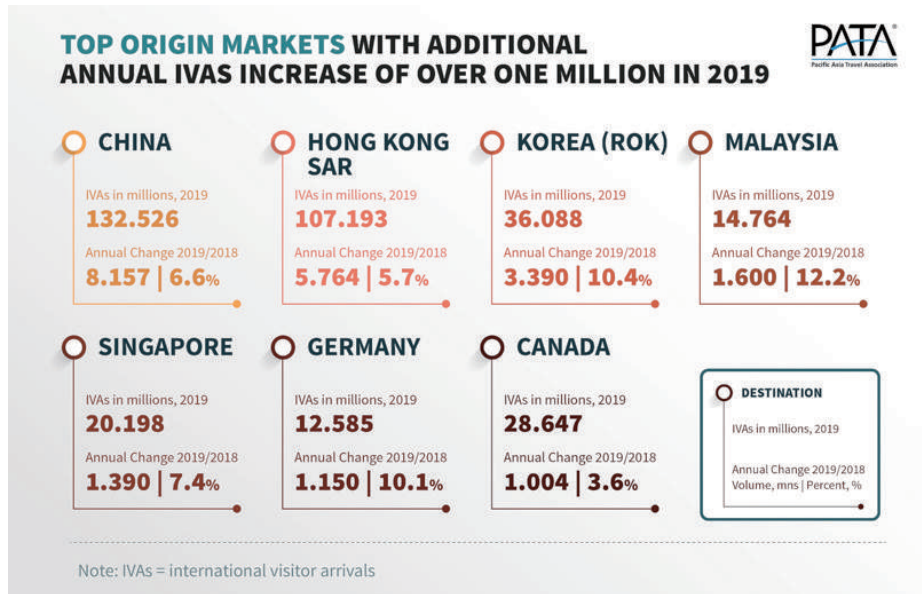
[그림2] 절대적인 물량 증가 측면에서는 중국, 미국, 태국의 국제 관광 수입 증가가 가장 많을 것으로 예상되며 일본, 말레이시아가 뒤따르고 있다.



[그림2] 2019년 아태지역의 국제 관광 수입 증가 상위 5개국



[그림3] 2019년, 7개국(중국, 홍콩, 한국,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독일, 캐나다)에서 각각 최소 100만 여명 이상의 외국인 방문객을 발생시킬 것으로 예상되며, 상위 5개국은 모두 아시아국가가 차지하고 있다.



[그림3] 2019년 100만 명 이상의 외국인 방문객 증가를 발생시키는 국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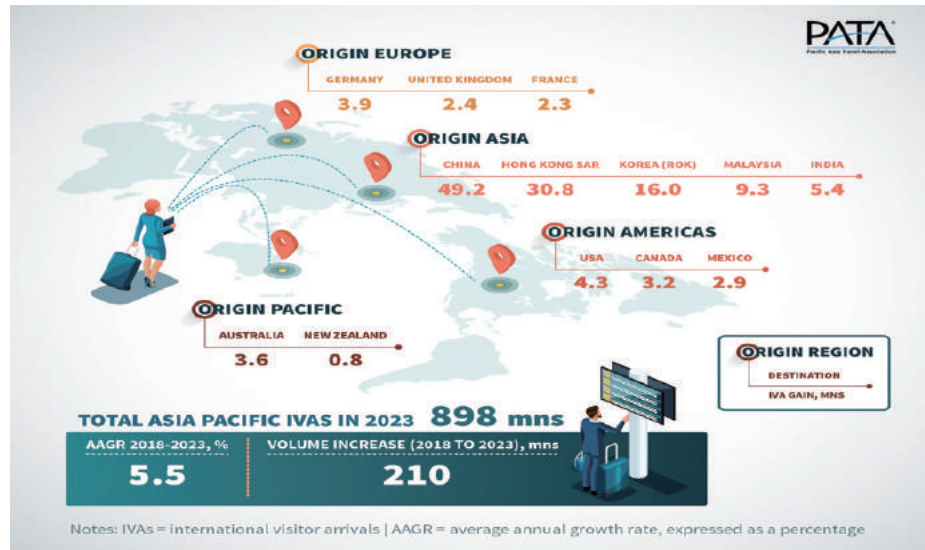
[그림4] 2023년까지 아시아 태평양 지역 중 중국으로 가장 많은 외국인이 방문할 것으로 예상된다. 2023년 9억여 명의 외국인이 아시아 태평양 지역으로 방문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 중 중국으로 약 22%, 미국으로 약 11%, 홍콩 약 9%, 터키 약 7%, 태국 약 6%로 추정된다. 상위 5개국이 예상 방문 외국인 수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그림4] 2023년까지의 외국인 방문객 증가 상위 5개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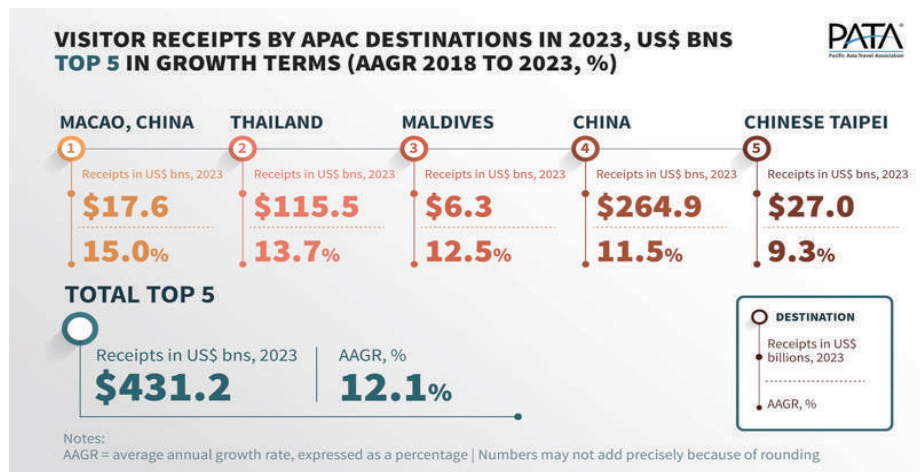
[그림5] 2018년~2023년 가장 많은 외국인 방문객을 발생시키는 국가는 중국과 홍콩으로 각각 4,920만여 명, 3,080만여 명 증가로 예상되며, 이어서 한국-1,600만여 명, 말레이시아-930만여 명, 인도-540만여 명 증가가 예상된다. 아시아에서 전 세계로의 엄청난 외국인 방문객을 발생시키고 있는 것이다.

2023년 아태지역으로의 예상 외국인 수는 약 8억 9,800만 명으로 평균 연 성장률은 5.5%이며, 2018년~2023년 5년 동안 약 2억 1,000만여 명 정도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 된다.



[그림5] 2018년~2023년 대륙별 외국인 방문객 발생국가(origin region) 현황 및 2023년 아태지역으로의 외국인 방문객 수

[그림6] 2018년에서 2023년까지 관광 수입액 성장률로 봤을 때 마카오, 태국, 몰디브, 중국, 대만이 상위 5개국으로 예상된다. 5개국의 2023년 관광 수입 총액은 약 4,312억 달러로 연 평균 약 12%의 성장률이 예상된다.



[그림6] 2018년~2023년 관광 수입액 성장을 상위 5개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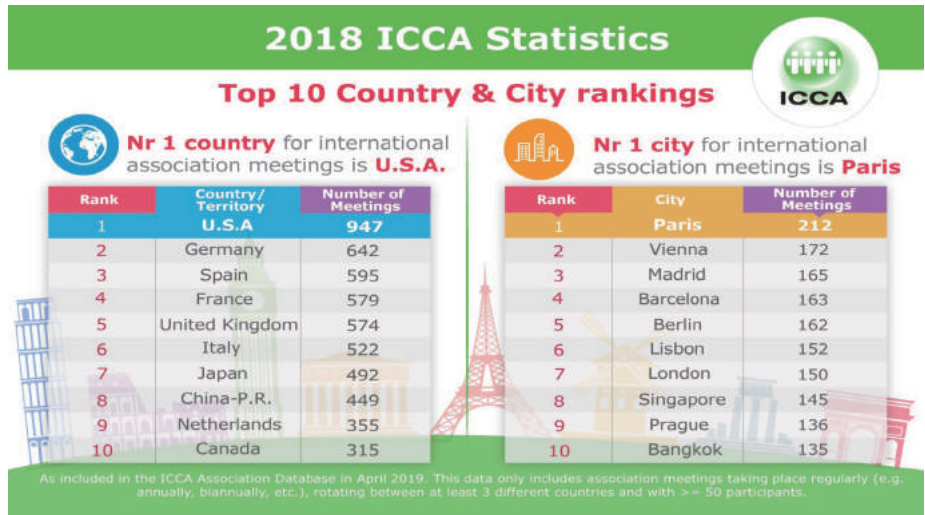
\* ICCA (International Congress and Convention Association)

1963년에 설립되어 전세계 100여 개 국에 1,100개 이상의 Meeting & Event 산업 종사 회원사 및 단체로 구성된 협회로, 현재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 본사가 있음

설립 이후 국제 협회 회의 분야에 특화되어, 신뢰도 높은 데이터와 다양한 커뮤니케이션 채널과 비즈니스 기회를 업계에 제공하고 있음

## 2. 2018 ICCA Statistics-Top 10 Country & City rankings (2019. 5 발표)

[그림기] 본 통계자료의 'International Association Meeting'은 50명 이상의 참가자를 보유하고 정기적으로 개최되며, 최소 3개국을 순회하며 개최되는 meeting을 의미함



[그림기] ICCA 통계- 2018년 국제회의 개최 수 상위 10개 국가 및 도시

### 2-1. 2018 국가 순위

- 한국이 13위에서 12위로 순위 상승
- 상위 20개국 중 일본, 중국, 한국만 아시아 국가임. (일본 7위, 중국 8위)
- 단, 일본과 중국은 개최건수가 각각 증가했지만, 한국은 순위는 상승했지만 개최건수는 감소함 (일본: 414건→492건 / 중국: 376건→449건 / 한국: 279건→273건)

2018 Country Rankings			2017 Country Rankings		
Rank	Country	# Meetings	Rank	Country	# Meetings
1	U.S.A.	947	1	U.S.A.	941
2	Germany	642	2	Germany	682
3	Spain	595	3	United Kingdom	592
4	France	579	4	Spain	564
5	United Kingdom	574	5	Italy	515
6	Italy	522	6	France	506
7	Japan	492	7	Japan	414
8	China-P.R.	449	8	China-P.R.	376
9	Netherlands	355	9	Canada	360
10	Canada	315	10	Netherlands	307
11	Portugal	306	11	Portugal	298
12	Republic of Korea	273	12	Austria	281
13	Australia	265	13	Republic of Korea	279
14	Sweden	257	14	Australia	258
15	Belgium	252	15	Sweden	255
16	Austria	240	16	Brazil	237
17	Brazil	233	17	Switzerland	230
18	Argentina	232	18	Poland	216
19	Poland	211	19	Belgium	208
20	Switzerland	208	20	Denmark	203

[표1] ICCA 통계-2017, 2018년 국제회의 개최 수 상위 20개국



## 2-2. 2018 도시 순위

- 서울이 10위에서 15위로 하락 (142건→122건)
- 2017년은 상위 20개 도시 중 아시아 도시가 5개(싱가포르, 서울, 홍콩, 방콕, 도쿄)였지만 2018년은 타이페이가 추가되어 아시아 도시가 6개임(타이페이의 약진이 돋보임)
- 2017년 아시아 도시 중 순위에서 서울이 싱가포르 다음 2위였지만, 2018년은 5위로 떨어짐  
(2017년 아시아 도시순위: 싱가포르-서울-홍콩-방콕-도쿄/2018년 아시아 도시순위: 싱가포르-방콕-홍콩-도쿄-서울-타이페이)

2018 City Rankings			2017 City Rankings		
Rank	Country	# Meetings	Rank	Country	# Meetings
1	Paris	212	1	Barcelona	195
2	Vienna	172	2	Paris	190
3	Madrid	165	3	Vienna	190
4	Barcelona	163	4	Berlin	185
5	Berlin	162	5	London	177
6	Lisbon	152	6	Singapore	160
7	London	150	7	Madrid	153
8	Singapore	145	8	Prague	151
9	Prague	136	9	Lisbon	149
10	Bangkok	135	10	Seoul	142
11	Buenos Aires	133	11	Buenos Aires	131
12	Hong Kong	129	12	Budapest	128
13	Amsterdam	123	13	Hong Kong	119
14	Tokyo	123	14	Dublin	117
15	Seoul	122	15	Copenhagen	115
16	Copenhagen	120	16	Amsterdam	112
17	Brussels	112	17	Bangkok	110
18	Dublin	104	18	Tokyo	101
19	Stockholm	103	19	Stockholm	103
20	Budapest	100	20	Montreal, QC	96
20	Taipei	100			

[표2] ICCA 통계-2017, 2018년 국제회의 개최 수 상위 20개 도시

\* UIA (Union of International Association)

1907년에 설립된 국제협회연합으로, 벨기에 브뤼셀에 본사를 두고 UN의 위임하에 운영되는 비영리연구기관임

전 세계의 협회 조직과 국제회의 등과 관련된 연구와 홍보를 주 목적으로 매년 협회 주최의 국제회의 개최순위를 발표하고 있음

## 3. UIA 60th International Meetings Statistics Report (2019. 6 발표)

2018년 순위는 167개국 1,197도시에서 개최된 11,240개의 Meeting 이 수집되었으며, 60회째 발간을 맞아 1999년~2018년 20년 동안의 가장 인기 있는 개최국 및 개최도시 순위를 발표했다.

### 3-1. 2018 국가 순위

- 한국은 2위, 싱가포르가 1위(2017년보다 한국은 1단계 하락, 싱가포르는 2위에서 1위로 상승)
- 2018년은 상위 10개국 중 아시아 2개국(한국, 일본), 2017년은 상위 10개국 중 아시아 3개국(한국, 일본, 태국)

Number of meetings in 2018			Number of meetings in 2017		
Rank	Country	# Meetings	Rank	Country	# Meetings
1	Singapore	1,177	1	Republic of Korea	1,297
2	Republic of Korea	854	2	Singapore	877
3	Belgium	849	3	Belgium	810
4	U.S.A.	592	4	Austria	591
5	Japan	579	5	U.S.A.	575
6	Austria	472	6	Japan	523
7	France	455	7	Spain	440
8	Spain	441	8	France	422
9	United Kingdom	329	9	Germany	374
10	Germany	296	10	Thailand	312

[표3] UIA 통계-2017, 2018년 국제회의 개최 수 상위 10개국

### 3-2. 2018 도시 순위

- 서울은 3위(2017, 2018년 모두 싱가포르 1위, 브뤼셀 2위, 서울 3위로 순위 변동 없음)
- 2018년은 상위 10개 도시 중 아시아 2개 도시(서울, 도쿄), 2017년은 상위 10개 도시 중 아시아 4개 도시(서울, 도쿄, 방콕, 부산)
- 2017년은 한국에서 2개의 도시(서울, 부산)가 10위권에 진입했으나 2018년은 서울만 포함

Number of meetings in 2018			Number of meetings in 2017		
Rank	City	# Meetings	Rank	City	# Meetings
1	Singapore	1,177	1	Singapore	877
2	Brussels	733	2	Brussels	763
3	Seoul	431	3	Seoul	688
4	Vienna	401	4	Vienna	515
5	Tokyo	313	5	Tokyo	269
6	Paris	259	6	Paris	268
7	Madrid	190	7	Bangkok	232
8	London	183	8	Busan	212
9	Barcelona	148	9	Berlin	198
10	Geneva	145	10	Barcelona	193

[표4] UIA 통계-2017, 2018년 국제회의 개최 수 상위 10개 도시

### 3-3. 1999년부터 2018년까지 가장 인기 있는 개최국 및 개최도시 순위

- 국가순위에서 한국은 9위, 도시순위에서 서울은 5위
- 20년 동안의 개최 인기국 10위 안에 아시아는 2개국(싱가포르, 한국), 개최 인기도시 10위 안에서는 아시아에서 3개 도시가 차지(싱가포르, 서울, 도쿄)

Most popular international meeting countries from 1999-2018		
Rank	Country	# Meetings
1	U.S.A.	24,064
2	France	13,903
3	Belgium	11,838
4	Germany	11,479
5	Singapore	10,155
6	United Kingdom	9,943
7	Italy	9,920
8	Spain	9,278
9	Republic of Korea	8,102
10	Austria	7,785

[표5] 국제회의의 개최 인기 국가(1999년~2018년)

Most popular international meeting cities from 1999-2018		
Rank	City	# Meetings
1	Singapore	10,155
2	Brussels	9,683
3	Paris	6,515
4	Vienna	5,916
5	Seoul	4,291
6	Geneva	3,992
7	London	3,575
8	Berlin	3,072
9	Barcelona	3,018
10	Tokyo	3,012

[표6] 국제회의의 개최 인기 도시(1999년~2018년)

\* 해외 MICE 동향은 (사)한국MICE협회 홈페이지  
MICE 동향 게시판에 정기적으로 업데이트 될 예정입니다.

‘음악, 공연, 음식’을 함께 즐기는  
엔터테인먼트 레스토랑, "JUST KPOP"



**회 사 명** 저스트 케이팝 (JUST KPOP)  
**대 표 자** 조재형  
**주 소**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 300 롯데월드타워&몰, 5층  
**전화번호** 1644-9996  
**팩스번호** +82-2-213-4555  
**홈페이지** www.justkpop.co.kr  
**담 당 자** 정은주  
**이 메 일** sophie.j@justkpop.co.kr



저스트케이팝은 국내에서 처음으로 선보이는 신개념 레스토랑으로, ‘음악, 공연, 음식’을 함께 즐기는 엔터테인먼트 레스토랑입니다. 세계를 사로잡은 케이팝과 K-힙합, 비보잉 댄스, 팝, 재즈, 퓨전국악, 타악 퍼포먼스, 가요 등 장르를 넘나드는 한국의 문화 콘텐츠를 다채롭게 풀어냅니다.



낮에는 석촌호수를 전경으로 여유로운 브런치 카페로 운영되며, 매일 저녁에는 공간을 가득 채우는 사운드와 눈을 땔 수 없는 퍼포먼스로 일상의 피로를 날려보낼 환상적인 라이브쇼의 향연이 펼쳐집니다.



저스트케이팝은 서울의 새로운 랜드마크인 잠실 롯데월드 타워 & 몰 5층에 위치하고 있어, 교통, 관광, 쇼핑의 최적화된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LED 디스플레이와 음향, 조명이 셋팅된 화려한 무대를 자체적으로 보유하고 있으며, 250석의 넓은 공간과 세계적인 수준의 음식을 자랑합니다. 세트메뉴, 코스메뉴, 뷔페메뉴 등 다양한 서비스가 가능하며, 프로페셔널 셰프들과 다양한 국적의 직원들로 구성되어 기업인센티브 갈라디너, 기업행사, 쇼케이스, 런칭파티 등 유니크한 행사를 제공합니다.

- 2019.01 New Year Concert, 180명
- 2019.03 Insurance Company Incentive Gala Dinner, 180명
- 2019.04 48th USO Korea Six Star Salute, 100명
- 2019.04 Welcome Reception for Korea & America Youth Promotion Association and President Trump's Volunteer Service Award Ceremony, 150명
- 2019.06 IT Company Incentive Gala Dinner, 250명
- 2019.06 Coupang Company Meeting & Dinner, 150명



## ‘자연’과 ‘가족’이 주인공인 곳 자연을 닮은공간, "STAGE28"

### 자연을 닮은 공간

예로부터 덕이 높은 곳이라 하여 이름 지어진 고덕동에 위치하고 있는 스테이지28은 자연과 함께하는 삶을 추구했던 창업주의 마음을 담았습니다. 손수 수십년을 돌보았던 나무와 꽃들이 여러분의 일상의 휴식이 되어 가족, 연인, 친구들에게 기쁨으로 기억되길 바랍니다.

### STAGE28의 주인공은 바로 ‘자연’입니다.

창업주가 20여년을 고덕동에 거주하면서 한그루 한그루 심기 시작했던 나무들이, 이제는 수 백그루의 나무와 꽃이되어 고덕산 한 자락을 뒤덮고 있습니다. 자연과 벗삼아 살아온 창업주의 새로운 무대, 스테이지28. 시원하게 흐르는 한강 물줄기와 사계절 고덕산의 아름다운 변화를 온 몸으로 즐길 수 있는 곳입니다.

### STAGE28의 주인공은 바로 ‘가족’입니다.

아이들이 태권브이를 통해 미래 로봇기술에 흥미를 느끼며 과학과 더욱 가까워지고, 어른들은 어린시절 향수를 느낄 수 있는 공간이 되길 바라며 [브이센터 라이브 뮤지엄]을 건립하게 되었습니다.

강남에서 10여분. 자연과 가장 가까운 서울의 또 다른 모습을 확인 할 수 있는 곳, 도심의 일상을 벗어나 가족과 함께 여유를 느낄 수 있는 공간입니다.

미래를 꿈꾸는 아이들이 푸른 나무와 꽃들과 잔디 위를 뛰놀며 과학을 체험하고 행복하게 웃을 수 있는 곳, 스테이지28은 온 가족의 즐거운 힐링타운입니다.

### EAT, PLAY, LOVE STAGE

스테이지28은 3가지의 테마로 구성 되어있습니다.

#### 1. EAT STAGE

##### GRILL RESTAURANT

총 2개동으로 구성되어있으며 각 동마다 80명 동시 수용이 가능한 공간으로 한국인의 입맛에 맞춘 인터내셔널 다양한 바비큐 그릴 메뉴, 텃밭에서 직접 기른 채소와 허브로 만든 신선한 샐러드를 제공 드리고 있으며, 합리적인 가격은 물론, 시그니처 메뉴로 길이 1미터에 달하는 커다란 바비큐 꼬치에 28가지 재료들이 듬뿍 들어 있는 예약메뉴를 제공하고 있으며 160명이 동시 착석이 가능한 모임, 파티도 가능한 공간입니다.



##### CAFE

총 1,2 층으로 구성 되어 있으며 전체 80명 동시 수용 가능한 곳으로 향긋한 커피와 건강한 오가닉티 메뉴, 컬러가 살아있는 건강한 과일채소 주스를 제공하며 국내산 썬으로 만든 인정미를 와플로 모양으로 구어낸 다양한 디저트부터 베이커리 팩토리에 직접 구운 건강한 빵과 쿠키까지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카페에서의 건강한 브런치를 즐기실 수 있습니다.

#### 2. PLAY STAGE

##### V-CENTER LIVE MUSEUM

아시아 최대규모 태권브이 박물관은 4D 영상관 등 총 10개의 섹션의 인터랙티브한 프로그램, 실내/외 15미터에 달하는 거대한 태권브이, 포토존등을 직접 체험 할 수 있는 테마파크형 체험 박물관으로 부모세대의 향수와 아이들이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추억을 선사합니다.

##### FARM TO PICNIC

봄에 관리를 시작해 6월이면 주렁주렁 달콤한 블루베리와 허브가든, 샐러리, 로메인등 직접 가꾸는 텃밭의 채소들을 아이와 엄마가 함께 체험하며 온가족이 함께 즐기는 야외영화상영, 플리마켓, 야외 바비큐등 다양한 이벤트와 공연을 관람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 3. LOVE STAGE

##### MEMORY GARDEN

사랑하는 사람과의 영화 같은 특별하고 소중한 웨딩파티 공간으로 최대 300명 수용 가능한 넓은 잔디 가든에서 즐기는 바비큐 뷔페는 물론 신나는 야외 공연을 즐길 수 있는 프라이빗한 파티를 즐길 수 있는 공간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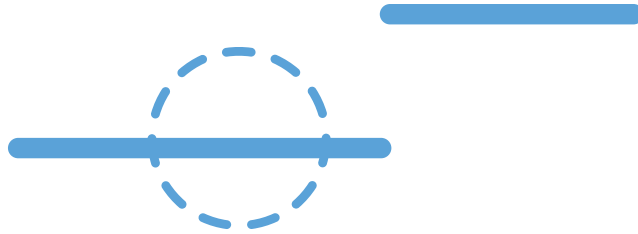
##### GREEN HOUSE

따뜻한 봄날 수백평의 텃밭으로 옮겨질 어린 묘종들과 묘목들을 기르고 보관하며, 선인장, 아열대성 식물, 실내 공기정화 식물들을 기르는 모던한 디자인으로 설계된 실내 공간입니다. 각 나라별 트렌디한 플로리스트를 초빙하여 다양한 플라워 스타일링을 교육하는 플라워워크샵, 자연친화적인 환경에서 화훼, 실내정원 용품 판매하는 플리마켓 등 350평의 넓은 공간에서 진행되는 다양한 행사가 개최됩니다.

홈페이지 <http://www.stage28.co.kr>

대표번호 02.3426.1928~9

주 소 서울시 강동구 아리수로61길105(고덕동)



## MICE와 지식재산권

지식재산권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인간의 지적 창조물에 대해 법이 부여한 권리



어느 날 갑자기, 한 통의 내용증명서가 사무실로 도착했다.

‘우리 폰트를 무단 사용하여 저작권을 침해했으니, 000원의 합의금 및 라이선스  
구입비를 0월 0일까지 지급하지 않으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예정 입니다.’

작년 행사에 사용했던 키비주얼 속 폰트가 문제였다.



### [자료출처]

이영욱 변호사

고려대 법학과 학사/석사/박사

큐슈대 LL.M.

1996 서울무비

1996~98 LG애드(AE/PR)

2005~ 사법연수원/변호사(법무법인 감우)

취미로 만화를 그리고, 연재하고 있음

최근 부쩍 늘고 있는 저작권, 특히 폰트와 관련한 분쟁 사례이다.

지식재산권은 ‘지적 능력을 가지고 만들어낸 창작물에 대한 권리’다.

그러나 MICE 업계에서는 지식재산권에 대한 인식 부족, 법률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위 사례와 같은 크고 작은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

협회는 MICE 폰트와 음원을 개발하여 행사장 운영, 영상 제작 등에서 개인 및 기업사용자 모두 무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배포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지난 4월 개최한 협회 주최행사 ‘APMBF2019’에서 사례를 통한 지식재산권 인식을 주제로 세션을 진행하였다.

이번 호에는 지식재산권 전문 법률 변호사인 이영욱 변호사의 강의자료를 기반으로 다양한 업계 지식재산권 사례를 공유하고자 한다.

O, X 퀴즈 형태로 진행되니 질문을 보며 잠시 고민해 보는 시간을 가져도 좋겠다.



**Q1. 모 행사의 입찰에 참가하였으나 탈락하였다. 그런데 이후 행사가 진행되는 것을 보니, 우리 회사가 낸 아이디어가 그대로 사용되고 있었다. 현행법상 이러한 행위는 법률 위반일까?**

현행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1호 차목에서는 아래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라고 규정하여 손해배상청구와 형사 처벌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차. 사업제안, 입찰, 공모 등 거래교섭 또는 거래과정에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타인의 기술적 또는 영업상의 아이디어가 포함된 정보를 그 제공목적에 위반하여 자신 또는 제3자의 영업상 이익을 위하여 부정하게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여 사용하게 하는 행위. 다만, 아이디어를 제공받은 자가 제공받을 당시 이미 그 아이디어를 알고 있었거나 그 아이디어가 동종 업계에서 널리 알려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따라서 공모전의 공모에서 제출한 아이디어를 부당하게 이용당한 경우는 ‘부정경쟁행위’를 주장하여 문제 삼을 수 있다.

답: O

**Q2. 어느 날 거래하던 업체로부터 ‘당신네 회사가 거래 시 실수를 했으니 2,000만원의 손해배상을 하라.’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받았다. 아무런 이유가 없는 내용증명이므로 대꾸를 하지 않을 생각인데, 이렇게 내용증명을 받고 답변을 하지 않아도 법상 불이익은 없다?**

내용증명은 단지 일방의 의사표시를 그 내용을 사후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방법(내용증명)으로 보낸다는 의미 밖에 없다. 즉, 내용증명으로 보내면 어느 시점에 어떤 내용의 문서를 보냈다는 내용을 우체국에서 보관하고 있다.

따라서 내용증명을 받고 답변하지 않는다고 해서 별다른 문제나 법적 불이익은 없으므로, 예를 들어서 ‘내용증명을 받고 14일 이내에 답변하지 않으면 상대방 주장을 인정하는 것’이라는 속설이 있는데, 근거가 없는 것이다.

다만 민사소송의 소장은 좀 다르다. 소장 내용이 사실과 다르면 적극적으로 답변서를 내고 소송에 응해야지, 가만히 있으면 패소를 하는 불이익을 당하게 된다.

답: O





### Q3. 용역을 수행하며 얻은 결과물은 주최측과 대행사가 공동으로 소유하는 것이 원칙이다?

‘용역계약일반조건’에서는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다.

“제56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

① 해당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며,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한다. 다만, 개발의 기여도 및 계약목적물의 특수성(국가안전보장, 국방, 외교관계 등)을 고려하여 계약당사자간의 협의를 통해 지식재산권 귀속주체 등에 대해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식재산권을 공동으로 소유하는 경우에는 국가안전보장, 국가의 방위계획 및 정보활동, 외교관계 등의 사유에 의해 지식재산권의 상업적 활용을 제한할 수 있는 경우를 당사자 간에 별도로 협의하여 정하지 않는 한 공유자 일방은 지식재산권의 복제, 배포, 개작, 전송 등의 사용·수익을 할 수 있다.”

이에 따르면 용역 결과물의 지식재산권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균등하게 소유함을 원칙으로 한다고 정하고, 다만 특별한 경우에는 달리 정할 수 있다고 한다. 보통 행사의 경우 발주자측에 지적재산권이 귀속한다고 정하는 경우가 보통인 듯 한데, 그것은 법규에서 정하는 원칙에 따른 것은 아니다.

답: O

### Q4. 우리 회사 직원으로 있던 사람이 작년에 퇴사 하였다. 그는 자신이 우리 회사에 다니면서 거의 혼자 완성한 A기획서가 자기 저작물이라고 주장하면서 회사에 더 이상 사용을 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맞는 주장일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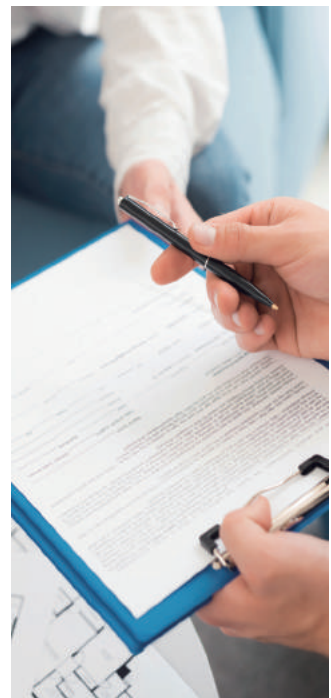
저작권법에서는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다.

“제9조(업무상저작물의 저작자) 법인 등의 명의로 공표되는 업무상저작물의 저작자는 계약 또는 근무규칙 등에 다른 정함이 없는 때에는 그 법인 등이 된다. 다만, 컴퓨터 프로그램저작물(이하 "프로그램"이라 한다)의 경우 공표될 것을 요하지 아니한다.”

즉, 회사가 기획하여 업무상 만든 저작물의 경우 직원이 창작한 부분도 회사의 저작물이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직원은 별도의 저작권을 주장할 여지가 없다.

다만, 직원이 아니라 외부 업체(협력 업체, 외주 업체)의 경우는 달리 보아야 한다. 이 경우는 별도의 계약서를 써서 저작권을 양도받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해당 외부 업체에 저작권이 계속 있다고 볼 여지가 크다.

답: X



**Q5. A행사의 입찰에 참가하려고 하는데, 공고와 제안요청서 내용을 보니 ‘탈락한 업체의 기획서의 저작권도 발주자측에 귀속된다.’고 한다. 이런 주최측의 방침, 별 문제 없는 걸까?**



문화체육관광부,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응모작 중 입상하지 않은 응모작에 대해서는 어떠한 권리도 취득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14년 8월 공공기관, 민간기업에서 ‘응모 작품에 대한 모든 권리는 주최 측에 귀속된다.’는 약관조항이 공모전 주최 사업자가 응모 작품의 지식재산권을 대가 없이 양수한다는 내용으로서 부당하다며, ‘응모 작품에 관한 모든 권리는 응모자에게 있다.’라고 수정하라고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는 공모전 요강으로서 ‘주최는 입상하지 않은 응모작을 모두 폐기하거나 저작자에게 반환한다.’라는 문구를 권장하고 있다.

답: X

위의 다섯 가지 사례 외에도 MICE 업계에서 겪고 있는 지식재산권 관련 다양한 분쟁 사례가 있을 것이다.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하는 것 뿐 아니라 함께 만든 MICE 창작물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도 법률과 다양한 사례에 대해 잘 알아야 할 것이다.

협회에서 개발한 MICE 지식재산 콘텐츠 외에도 자유롭게 이용 가능한 저작물을 제공하는 곳이 있다.

바로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공유마당’ 이다. (<http://gongu.copyright.or.kr>)

위 사이트에는 제한 없이 이용이 가능하거나 일정한 제한 하에 (예. 저작자 이름 표시, 비상업적 이용만 가능)

이용할 수 있는 이미지, 영상, 음악, 어문, 폰트 등 저작물을 전시하고 있다.

물론 외국 사이트 중에서도 자유이용이 가능한 저작물을 제공하는 사이트들,

예를 들어 구글 이미지 검색(조건 검색), 픽사베이, 언스플래시 등 사이트들이 있다.



# MICE 통합 컨시어지 데스크

## MICE 통합 컨시어지 데스크

(사) 한국MICE협회는 MICE 산업 발전이라는 목표 하에, MICE 개최지로서 대한민국의 경쟁력을 높이고, MICE 행사 참가자들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MICE 통합 컨시어지 데스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MICE 산업 및 글로벌 기업들에게는 저렴한 비용으로 최고의 운영 기회를, 참가자 및 방문 외국인에게는 최고의 환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데스크 주요 효과

- MICE 행사 주관사 및 PCO, 비즈니스 기업 등의 영접 비용 절감
- 데스크 전문 인력이 상주하고 있어 추가 인력 비용 절감, 원활한 행사 운영 및 환대 서비스 지원
- 국내 MICE 행사 참가 외국인 및 비즈니스 관련 방문객 환대 서비스 제공으로 MICE 유치 경쟁력 강화 및 성공적인 비즈니스 효과 기대
- 접근성이 어려운 지역의 교통 및 숙박 정보 제공으로 원활한 참가 안내
- 성수기 기간 동안 개별 데스크 임차 공급 부족 해결

**| 운영시간 :** 성수기(07:00-21:00)/비수기(09:00-18:00), 연중 무휴

**| 장소 :** -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도착층 1층 63번 데스크(13번 출입구 부근)

-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도착층 1층 동편 중앙데스크(4번 출입구 부근)



### 제1여객터미널

제1여객터미널 1층 서편 63번 데스크(13번 출입구 부근)



### 제2여객터미널

제2여객터미널 1층 동편 중앙데스크(4번 출입구 부근, 파리바게트 맞은편)

**| 사용대상 :** 협회 회원사 및 인바운드 여행사, 학회 및 협회 주최자, 국내소재 글로벌 대기업 및 국제기구, 기타 MICE 관련기업 등

**| 이용대상 :** MICE 관련 행사 참가자, 기업 비즈니스 관련 방문자, 기타 VIP 등

**| 이용요금 :** 행사 별 외국인 참가자 수에 따라 상이함

**| 이용방법 :** 신청서 작성 후 이메일 접수(strategy@micekorea.or.kr)

### | 주요 서비스

- 개최 행사 내용 안내(리플렛, 기업소개 등 홍보 가능)
- 교통 및 숙박, 쇼핑 안내
- 참가자를 위한 대한민국, 각 지역 안내 패키지 제공
- VIP, 일반 기업 비즈니스 관련 방문자 환대 서비스

**| 문의 :** 인천공항 컨시어지 데스크 (Tel: 032-715-5646)



# MICE 행사 보험



## MICE 행사 보험이란?

- MICE 행사 보험은 국내에서 개최되는 MICE 행사에 대해 (사)한국MICE협회가 'MICE행사보험사 (한화손해보험)'와 '회원사'를 연계 함으로써 회원사에게 보다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행사 보험을 제공해주는 서비스
- MICE 행사 보험을 가입함으로써 행사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발행할 수 있는 위험을 관리할 수 있으며, 협회 회원사는 행사에 대한 기본 지식을 가진 보험 담당자와 협의를 통해 보다 신속한 절차로 보험 가입 및 지급이 가능

## 운영 프로세스



가입	① MICE 행사 보험 안내	영업배상책임보험(행사배상) 설문서 제공
	② 보험가입 의뢰	설문서 (행사 개요 및 인원내역 등) 이메일 송부
	③ 각 행사별 보험료 안내	선택 가입 담보 및 가입금액에 근거한 행사별 보험료 안내
	④ 보험료 납입 및 계약 확정	각 행사 보험료 납입 후 계약 확정 및 증권전달
보상	① 사고 접수 및 보험금 청구	사고발생 내역 및 보험금 청구 접수
	② 사고조사 및 보험금 지급	접수 내역에 대한 사고 조사 실시 및 손해액 산정 보험금 지급

## 혜택 및 상품 내용

보험 가입 혜택	다양한 RISK 담보	스텝 및 참여 고객에 대한 각종 상해 및 주차장배상, 행사취소시의 위험분산, 입출국시 위험(여행자보험) 등		
	손해사정 신속성	MICE 협회 전담 보상직원 및 손해사정인 배정		
	보험료 절감	향후 개별보험의 단체성 보험가입 프로그램 구축으로 할인요소 반영		
상품 내용	상품	보험기간	납입	비고
	행사종합보험	행사기간	일시납	관람객 담보
	영업배상책임			관람객 담보
	여행자보험(국내,국외)			국외행사 및 외국인 참여행사
	단체상해			행사 준비요원 담보

## 가입 방법

MICE 행사보험 가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협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www.micekorea.or.kr](http://www.micekorea.or.kr))

## 협회 가입 안내

(사)한국MICE협회는 **MICE 산업 발전**이라는 목표 하에,  
다양한 협력과 역량 강화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융복합 산업의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 · 한국MICE협회의 역할

#### 업계 이익대변

- 회원사 고충 처리
- MICE 정책 의견 개진 및 정책과정 참여
- 권역별 MICE 간담회

#### 업계 지원

- 관광기금 융자 신청 접수
- 관광공제회 운영
- 정부포상 추천
- 해외 MICE 행사 바이어 초청 연계
- 인천공항 MICE 컨시어지 데스크 운영
- MICE 행사 보험/MICE 신용평가 협력 지원
- MICE 행사 프로모션 지원
- MICE 지식재산권(음원, 폰트) 콘텐츠 제공
- MICE 관련 자문위원, 평가위원 추천

#### 교육&컨설팅

- 재직자 대상 MICE 교육
- MICE 예비진출자 대상 프로그램 운영
- MICE 해외 박람회 교육 참가 지원
- 온라인 MICE 교육 콘텐츠 제공
- MICE 공무원 교육
- NCS(국가직무능력표준) 컨벤션 분야 개발 및 개선 참여
- MICE 관련 컨설팅 & 자문
- MICE 연구 사업 수행

#### 네트워킹&정보공유

- 「The MICE Plus」 발간
- 회원사 디렉토리 발간
- 회원사 간 네트워킹 기회 제공
- MICE 동향 및 입찰 채용 공고 알림
- 'Asia Pacific MICE Business Festival' 개최  
((구) 한국마이스연례총회 및 마켓플레이스)
- 신년회, 신규회원사 간담회 등

### · 가입절차

#### 회원가입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제출처: kma@micekorea.or.kr
- 제출서류
  - 회원가입신청서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1부
  - 기업/기관 로고(ai) 파일

#### 위원회 검토 및 승인

#### 연회비 납부

#### 회원가입 완료

- 납부처 : 국민은행 468037-01-013517  
(예금주: (사)한국MICE협회)

### · 회비안내

구분	세부내용	회비/연
정회원	회장사	10,000,000 원/연
	· 부회장사 · 한국관광공사 및 지역관광공사 · 컨벤션센터	5,000,000 원/연
	· 이사사 · 컨벤션뷰로/준회의시설 · 정부투자기관	2,000,000 원/연
	일반회원사	1,000,000 원/연
특별회원	기부회원	5,000,000 원/연
	지방자치단체	2,000,000 원/연

\*회원가입 문의: 기획조정팀 김수선 파트장 (02-3476-8327)

대한민국 융복합 글로벌  
산업의 플랫폼, 마이스!  
**한국MICE협회가 함께합니다!**



글로벌 MICE 인재 양성의 메카,  
온라인 MICE 연수원이  
MICE인의 꿈과 열정을 응원합니다.

온라인 MICE 연수원은 융복합 산업의 플랫폼인 MICE산업의 진흥과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 플랫폼”입니다.

온라인 MICE 연수원은 온/오프라인 MICE 교육과정을 통해,  
‘사람’ 중심인 MICE산업의 예비 입문자와 재직자들에게 Next-Level로  
도약하기 위한 발판을 제공하고, MICE산업 일자리 창출과 MICE 기업 역량강화를 지원합니다.



## 온라인 MICE 연수원 만의 혜택!

### Benefit 1. 업계 전문가가 전하는 MICE 실무교육

MICE산업에 종사하는 전문가를  
강사진으로 구성하여 업계 실무를  
공부하는데 도움될 수 있는  
양질의 이러닝 교육 콘텐츠를 제공합니다.

### Benefit 2. MICE 기본과정 부터 심화과정 까지 A to Z

전반적인 MICE산업을 이해할 수 있는  
기본과정부터 실제 업무의 수행 여부를  
평가하는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을  
기반으로 한 심화과정까지 체계적인 교육  
로드맵을 제공합니다.

### Benefit 3. Everywhere, Everytime

PC, 모바일, 태블릿 등 대부분의 기기에서  
제약없이 접속이 가능하며, 언제 어디서나  
온라인 강의를 수강할 수 있습니다.

### Benefit 4. 한국MICE협회 수료증 발급

과정 수료 시 한국MICE협회 명의의  
수료증이 발급되며, 추후 MICE업계 구직  
활동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 Benefit 5. MICE 업계 채용 정보 제공

한국MICE협회에는 국제회의기획업(PCO), 국제회의시설업(컨벤션센터, 유니크베뉴),  
국제회의서비스업(여행사, 호텔, 시스템 등), 유관기관(공사, 뷰로 등)을 비롯한 약 300여  
업체의 회원사가 가입되어 있으며, 관련 채용 정보를 신속히 제공해드립니다.



\*위 사진은 온라인 MICE 연수원 교육 과정 수강 시 보여지는 실제 화면입니다.

## | 온라인 과정 목록

온라인 과정 전액 무료 제공

### MICE 기본과정(14차시)

#### “ MICE 산업 이해와 전반적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기본 교육 과정 ”

MICE 산업 현황 및 동향, 컨벤션뷰로의 역할과 유치 마케팅,  
컨벤션/전시회 기획 운영 실무, 컨벤션센터 운영,  
등록 및 숙박, 의전, 식음료, 기자재 및 시스템 운영,  
현장요원 운영 관리, 여행사 업무 및 인센티브 투어 실무,  
국제행사 유치 성공사례 등

### MICE 심화과정(21차시)

#### “ NCS 내용을 기반으로 한, 현장에서 수행되는 업무별 심화 교육 과정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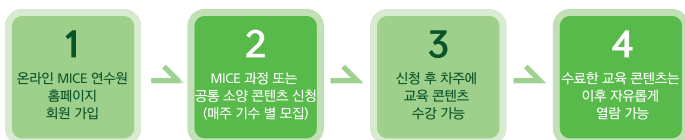
기업회의/학술회의/이벤트 유치, 신규회의의 개발 프로세스,  
회의 개최를 위한 시설, 목표, 주제, 프로그램 기획, 제안서 작성,  
예산 수립 및 정산, 회의 후원 유치, 회의 프로그램 개발,  
회의 등록 및 숙박 관리 등

### 공통 소양 과정

#### “ 기획, 프레젠테이션,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등 업무 능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교육 과정 ”

※ 더 많은 과정은 온라인 MICE 연수원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이용안내



이제 MICE를 온라인에서!

온라인 MICE 연수원 가입을 놓치지 마세요!



## + MICE 업계 취업을 위한 Job Contents !

### · 분야별 MICE 기업 취업을 위한 카드 뉴스 및 영상

- 업무 분야 소개, 기업 소개, 직무 수행을 위한 자질에 대한 소개
- 업계 선배의 취업 팁 전수!



[www.e-micekorea.or.kr](http://www.e-micekorea.or.kr)

온라인MICE연수원 대표번호 1522-9568



# MICE 행사를 한층 돋보이게 하는 기념품

(주)두레샘은 2006년부터 유럽의 프리미엄 기념품 전문기업인 프랑스 LEXON , 이태리 NAVA design사의 한국 파트너사를 맡아 MICE 행사를 한층 돋보이게 하는 기념품을 제공합니다.

나아가 자체 디자인실을 통해, 고객 맞춤형 다이어리, 텀블러, 우산 등 고객사에서 요청하시는 다양한 Customizing items을 디자인+ 제작하여 드립니다.

성공적인 국제 • 국내 행사에 기념품을 고려하신다면 전문기업 (주)두레샘에게 맡겨주세요.

Client - 삼성에스원, 삼성, LG 디스플레이, KBS, SBS, NAVER, 대신증권, 지멘스, 제일기획, 서울대학교외 다수  
주요공급제품 - business backpack, documents bag, 다양한 데스크 용품과 우산

(주)두레샘 대표 : 안재영- 010.6265.4321



**LEXON**  
Design in life

FLAT LAPTOP & TABLET POUCH COLLECTION



TRACK LAPTOP & TABLET POUCH / WALLET & BRIEF



**DOORE  
SAEM**

(주)두레샘 | 경기도 파주시 탄현면 헤이리마을길 59-128 TEL 02-968-4321 BRAND기획/ 070-7702-7341  
www.araonkorea.com , email. doore@araonkorea.com